

# SENIOR 조선

멋지게 나이 드는 이들을 위한 섹션 매거진 [senior.chosun.com](http://senior.chosun.com)

OCTOBER  
2012  
VOL.06

Theme of the Month

오디오를  
모르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





# 존재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다.

완벽한 존재는 수많은 수식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설명보다 존재,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완벽한 BMW 뉴 7시리즈를 가장 먼저 만나십시오. **The Statement.**

## THE NEW BMW 7 SERIES.

### BMW EfficientDynamics

730Ld

15.2km/l 258h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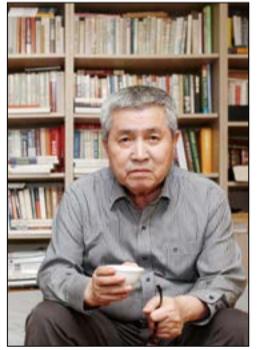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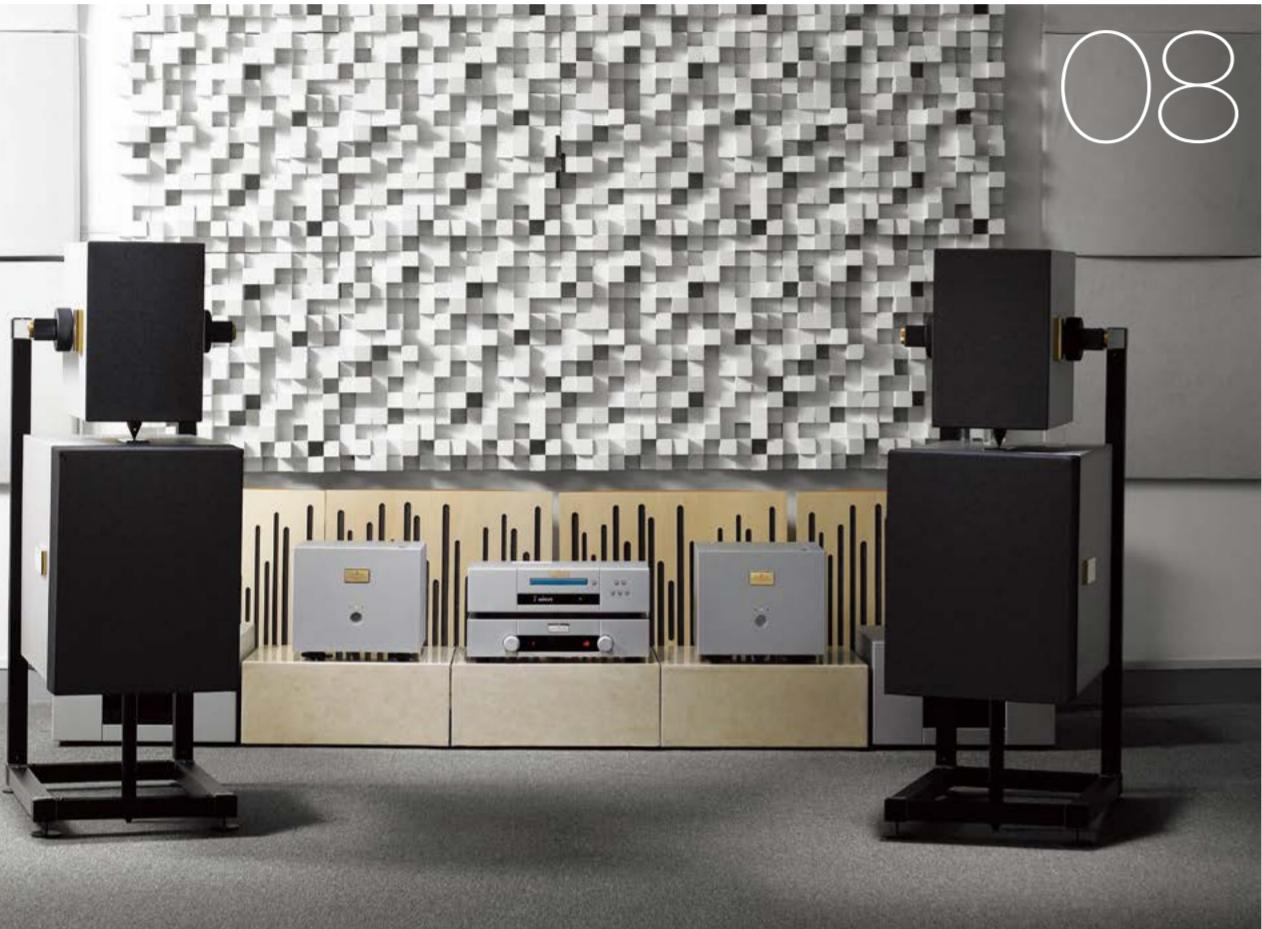
**BMW 커뮤니케이션 센터** (080) 269-2200 **BMW 공식 홈페이지** [www.bmw.co.kr](http://www.bmw.co.kr) **BMW 페이스북** [www.facebook.com/BMWKorea](http://www.facebook.com/BMWKorea)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The new BMW 7 Series 730d 배기량 2,993cc, 공차중량 1,840kg, 자동 8단, 복합연비 15.2km/l (고속도로주행연비 17.9km/l, 도심주행연비 13.6km/l) CO<sub>2</sub> 128g/km, 2등급 730Ld 배기량 2,993cc, 공차중량 1,875kg, 자동 8단, 복합연비 15.2km/l (고속도로주행연비 17.9km/l, 도심주행연비 13.6km/l) CO<sub>2</sub> 129g/km, 2등급 740d xDrive 배기량 2,993cc, 공차중량 1,940kg, 자동 8단, 복합연비 15.7km/l (고속도로주행연비 15.7km/l, 도심주행연비 11.8km/l) CO<sub>2</sub> 149g/km, 3등급 740i 배기량 2,979cc, 공차중량 1,825kg, 자동 8단, 복합연비 9.9km/l (고속도로주행연비 11.7km/l, 도심주행연비 8.8km/l) CO<sub>2</sub> 179g/km, 4등급 740Li 배기량 2,979cc, 공차중량 1,845kg, 자동 8단, 복합연비 9.9km/l (고속도로주행연비 11.7km/l, 도심주행연비 8.8km/l) CO<sub>2</sub> 179g/km, 4등급 750Li 배기량 4,395cc, 공차중량 2,035kg, 자동 8단, 복합연비 8.1km/l (고속도로주행연비 10.1km/l, 도심주행연비 6.9km/l) CO<sub>2</sub> 222g/km, 5등급 760Li 배기량 5,972cc, 공차중량 2,379kg, 출시예정, 자동 8단, 연비/CO<sub>2</sub>/등급 출시예정 ActiveHybrid 7 L 배기량 2,979cc, 공차중량 출시예정, 자동 8단, 연비/CO<sub>2</sub>/등급 출시예정 \*이 연비는 표준모드로 위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경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본 광고 이미지는 실제 차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양 및 제원은 성능 개선을 위하여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별 옵션 적용 사항은 기관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inside

VOL.06 OCTOBER 2012

&lt;시니어조선&gt;은 멋지게 나이 드는 이들을 위한 섹션 매거진입니다.



- COVER**  
경기도 용인의 자택에서 만난  
임권택 감독은 여전한 모습이었다.  
그는 지난해 101번째 영화  
<달빛 걸어올리기>를 선보인 데  
이어 102번째 영화를 구상 중에  
있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인천아시안게임 개·폐막식  
총감독이라는 새로운 타이틀로  
다중 암에 걸친 환경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그는 임종을  
맞은 그의 마지막 작품은 어떤  
것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 08 HOBBY** 오디오 그리고 인생  
혹자는 말한다. 오디오를 모르는 인생은 의미가 없노라고. 남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취미 '오디오' 걸리잡이.
- 12 PEOPLE** 영화감독 임권택  
평생 100편이 넘는 영화를 만들었고, 여든이 가까운 지금까지 쉼 없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영화의 거장.  
그가 고백하는 영광의 비결.
- 14 My Movie** 내 인생 한 편의 영화  
때로 한 편의 영화가 지친 일상을 치유하기도 하고, 행복한 순간의 풍요를 더하기도 한다. 영화를 사랑하는  
각계 명사들이 꼽은 인생 최고의 영화.
- 15 Look** 니트의 계절, 당신의 선택은?  
울기를 니트는 보다 맑고 경쾌해졌다. 블랙과 그레이로 무장한 당신을 분위기 있는 가을 남자로 거듭나게 해줄 니트 이야기.
- 16 Finance** 연령별 보험 설계 가이드  
믿을 수 있는 건 단단한 노사 보험뿐이다. 안락한 미래를 위해 연령대별로 준비해야 할 실버보험을 소개한다.
- 17 Tips** 계절성 우울증 차방  
기온만 되면 되풀이되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은 주목하라. 계절성 우울증의 원인과 예방·치료법을 알아본다.
- 18 This Car** 재네시스 프라다 2013  
고유의 가치는 유지하고 혁신은 더했다. 고객의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지난달 새롭게 출시된 '제네시스 프라다 2013'의 모든  
것.
- 20 Community** 유어스테이지 앱 출시  
국내 최대 시니어 포털사이트 유어스테이지(www.yourstage.com)가 출시하는 SNS 모바일 앱 등 유용한 정보가 한가득.
- 21 Health** 시니어의 건강지킴이 홍삼  
피로 해소·면역력 개선 등에 탁월한 최고의 건강기능식품 홍삼. KGC인삼공사에서 제안하는 기능성 홍삼제품을 살펴본다.
- 22 Travel** 철상의 섬 모리셔스 그리고 그곳의 생제당  
신은 모리셔스를 만난 후 철상을 만들었다. 철상을 닮은 인도양의 아름다운 섬 모리셔스와 그곳의 아주 특별한 리조트 이야기.
- 23 Culture** 이달의 문화  
기울의 낭만을 더해줄 문화소식. 미아이를 불른 내한공연부터 스티브 맥카리 사진전까지, 놓칠 건 하나도 없다.
- 24 Special Event 2012** 서울국제시니어엑스포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 시니어 관련 기관들이 충집결하는 국내 최초의 글로벌 시니어 행사. 그 현장을 담은 옛스포

**PUBLICATION**  
시니어조선  
발행인 양근만 yangkm@chosun.com  
방정오 cbang@chosun.com  
  
시니어파트너즈  
대표 박은경 maypark@yourstage.com  
상무 김형래 hr.kim@yourstage.com  
팀장 전영선 ys.chun@yourstage.com  
  
창간일 2012년 4월 25일  
발행일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등록번호 서울 다10391  
등록일자 2012년 3월 19일  
발행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0  
인쇄 (주)미디어티피에스  
출판 아이엔지프로세스

**EDITORIAL & ART**  
편집장 정지현 toctoc@chosun.com  
선임기자 박소란 psr@chosun.com  
객원기자 노준형 jh.roh@yourstage.com  
박철진 soook49@naver.com  
안아름 sebin1215@chosun.com  
포토그래퍼 C.정상미디어  
디자인 벌디자인  
미술교정 김경애 aeiswon@naver.com  
교열 최귀열 aroma1510@naver.com

**MARKETING & ADVERTISING**  
총괄부장 박정훈 jpjh@chosun.com  
팀장 정하나 hana@chosun.com  
대리 총은애 bhong@chosun.com

**ONLINE**  
부장 이재훈 jacopas@chosun.com  
기자 박준현 pjh81@chosun.com  
웹디자인 문형경 effira@chosun.com

**INFORMATION**  
취재 편집 02-724-7868  
광고마케팅 02-724-7886  
재무 02-724-7864  
대표 메일 senior@chosun.com  
트위터 @seniorchosun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niorchosun

\* <시니어조선>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원효로, 한강로, 명동, 남대문로, 무교동, 공덕동, 서교동, 디지털단지, 경기 분당, 과천, 일산, 영통, 기흥 등 수도권 프리미엄 지역 및 오피스 일자리 조선일보 독자들에게 배포됩니다.

\* 본 매거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시니어조선>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니어조선은  
국내대표 매거진포털APP  
'웹진'에서 무료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자난호 HEALING TOWN 코리에 소개된 경남 산청군  
소재 동의본가 힐링타운 '의문의 전통'에 대한  
설명입니다. 궁금하다면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자난호 힐링타운은  
경상남도 산청군에 위치한 힐링 마을로,  
국내 최초로 힐링 마을로 인증받았습니다.



## EOS 650D TOUCH NOW

지금 EOS 650D를 터치하면 대박 선물이 따라온다

9.15-11.5

행사제품 : EOS 650D 행사내용 : 행사기간 중 해당제품을 구매하고 정품등록 및 이벤트 응모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행사혜택 : 현대모비스 정품 블랙박스 or 키자니아 가족입장권 (대인 2매, 소인 2매) or 캐논 정품 배터리 중 택1 총정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canon-ci.co.kr)를 참조하세요



| 현대모비스 정품 블랙박스 |



| 키자니아 가족입장권 |



| 캐논 정품 배터리 |

[www.canon-ci.co.kr](http://www.canon-ci.co.kr)

# HOBBY

황준은 대학 시절 우연히 오디오라는 세계를 알게 된 이후, 1980~90년대 오디오 시장의 주무대인 세운상가, 대림상가, 용산전자상가를 두루 섭렵하며 20여년간 오디오에 빠져 지낸 인물이다. 〈오디오 마니아 바이블〉, 〈오디오 마니아 매뉴얼〉, 〈내가 오디오에 미쳤습니다〉(돈을새김 키) 등 오디오 지침서를 출간, 오디오 애호가들이 진정한 마니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투지를 불태우고 있다. 본업은 건축가로서 현재 황준도시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여 건축설계활동을 하고 있다.



# 오디오를 모르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지만, 한편으로는 좋아하는 것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  
미가 필요한 이유다. 당신은 어떤 취미를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이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면 남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라는 '오디오'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흔히 자동차, 카메라 그리고 오디오를 남자의 '3대 장난감'이라고 한다. 이들은 각기 다른 매력으로 남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지만 특히 오디오는 중독성이 강하고, 한번 끌어들면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뜻일 터이다. 따지고 보면 오디오는 세탁기, 냉장고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자제품과 다르지 않다. 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조합하고 전기로 작동하여 소리를 내게 하는 단순한 기능의 기계 장치 아닌가. 그러나 옷을 세탁하거나 음식물을 보관하는 등 물리적으로 편리한 기능을 하는 여타의 제품과 달리 오디오는 음악을 들려주는, 말하자면 감성적인 기능을 하는 기기라는 것이 핵심이다. 마치 내 곁에서 첼리스트 요요마가 바흐의 무반주 첼로 협주곡을 연주하는 듯한 감동, 재즈 보컬리스트 빌리 홀리데이가 'I'm a fool to want you'의 첫 소절을 부르며 마음을 달래주는 듯한 착각, 비 오는 날 가수 심수봉이 피아노 반주를 곁들여 간드러지게 부르는 '사랑밖에 난 몰라'를 바로 옆에서 듣는 듯한 가슴 뭉클한 경험을 하고 나면 오디오는 더 이상 한낱 기계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막상 오디오를 취미로 삼으려 하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이다. 몇십 만 원대에서부터 몇십 억대를 호가하는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가진 오디오 기기들 중 내게 맞는 접점을 찾아낼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다. 스피커까지 세트로 같이 사야 하는지, 각각의 단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오디오란 무엇이며, 어떻게 구입하는 것이 좋은지 한 단계 한 단계 깊어가며 오디오의 세계에 한 걸음 다가가보자.

## TEP1 적정한 초기투자 비용은 얼마인가

오디오를 취미로 즐기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예산에 맞는 품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자신의 능력에 는 오디오 가격은 얼마일까? 오디오 마니아 황준 씨는 문자의 경우 월급의 1~2배 정도를 적정선으로 제안한 “일반 회사원이라면 월급의 2~3배 정도의 비자금을 가 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비자금의 범위에서 구입한다면 어렵지 않게 오디오를 시작할 수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를 하다 보면 업그레이드의 유 을 빠져갈 수 없는데, 초기 투자비가 크게 부담이 되지 않 면 기기를 업그레이드하는 비용도 그리 부담이 되지 않 니다.”

능한 예산 내에서 오디오 기기를 구매한다면 앰프와 스트리어 중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 횡준 씨는 초보자가 오디오를 구입할 경우 앰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물론 오디오를 구입할 때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 스피커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자주 듣는 음악, 좋아하는 악기, 앰프의 출력, 스피커의 크기, 매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스트리어에 중점을 두는 것은 오디오를 많이 접해본 이후에 하거나 초기 단계의 오디오 시스템을 마련할 때에는 시스템의 전반적인 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앰프 45, 스피커 30, 시디플레이어 20, 스피커 케이블과 인터커넥터 5 정도의 비율로 예산을 분배할 것을 권한다.

앰프가 일정 수준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스피커가 좋아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반면 기본 이상의 음색을 가진 앰프의 힘이 충분하다면 평범한 스피커로도 상당히 좋은 소리

의 힘이 충분하다면 평범한 스피커로도 상당히 좋은 소리다.

리를 재생합니다. 오디오 기기에서 마지막으로 소리를 내주는 스피커의 선택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먼저 소리를 만들어내는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앰프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TEP3 오디오 사운드는 매칭이 좌우한다**  
자동차나 컴퓨터 같은 가격에 성능이 비례하는 데 비해  
오디오는 이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앞서 말했듯  
기기의 매칭이 음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JBL L-65라는 유명한 스피커가 있습니다. 또 매킨토시  
MA6200이라는 좋은 앰프가 있지요. 둘 다 소문난 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를 연결하면 좋지 않은 소  
리를 냅니다. 이런 경우 '매칭이 좋지 않다'고 하죠. 그런데  
매킨토시 MA6200에 JBL L-65의 1/3 가격인 JBL L-112와  
연결해보면 아주 훌륭한 소리가 납니다. 무척 신기하지요"  
라고 오디오 마니아 황준은 말한다.

이유하곤 한다. 예를 들어, 전통 있는 회사에서 만든 고가의 앰프로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이 있다고 치자. 여기에 섬세하고 고상한 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인클로저 역시 근사한 스피커를 연결한다면? 이런 앰프와 스피커가 만나면 천생의 소리를 낼 것 같지만 실제 연결해서 들어보면 고음역은 시끄럽고, 저음역은 퍼지면서 형편없는 소리를 내기도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멋진 스피커에 출력도 별로 세지 않은 그저 그런 앰프를 연결했는데 깜짝 놀랄 정도의 좋은 소리를 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가을은 음악을 듣기에  
가장 좋은 계절인 듯싶습니다.  
낙엽이 하나둘 떨어질 때쯤 분위기  
있는 곡을 들으면 어떤 음악이라도  
감동을 선사하죠. 특히 여성 보컬의  
음색이 어느 계절보다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때이기도 합니다. 올가을에는 분위기  
있는 여성 보컬의 CD를 하나 사서,  
스피커에 그 여인을 불러 세워  
밤늦도록 노래를 부르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때 조명을 어둡게 하고  
듣는 것이 필수입니다.

## 황준(오디오 마니아)

## 오디오 구입 전 self-check 4

### 1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본격적인 음악 감상을 할 것인지, 항상 음악이 흐르는 집을 만들 것인지를 결정한다. 또한, 음악을 듣는 공간의 크기에 따라 오디오 기기의 크기가 결정되므로 주로 음악을 듣는 공간의 넓이도 확인한다.

2 자신이 어떤 음악을 즐겨 듣는지 확인한다  
흔히 클래식은 영국산 스피커가 좋고, 팝송·재즈는  
미국산 스피커가 좋다고 말한다. 요즘에도 이런 공식이  
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자신이 즐겨 듣는 음악을 잘 재생해줄 수 있는 기기를  
선택하도록 한다.

3 여러 기기의 소리를 많이 들어본다  
오디오 구입 전 최소 20조 이상의 기기를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오디오 전문점의 리스닝 룸이나  
용산전자상가, 세운상가에 가면 기기별 음색을 들어볼  
수 있다. 이때, 자신이 좋아하고 자주 듣는 음반을  
가지고 가는 것은 필수이다.

4 예산은 최소 비용으로 시작한다  
처음 오디오를 구입할 경우, 무조건 최소 비용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오디오를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저렴한 중고 제품으로 시작하는 것도 방법. 더 좋은 소리를 알게 되면 기기를 업그레이드한다.

## Vintage

오디오는 최신 기술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전자 제품이다. 오디오 마니아들 중에는 요즘에 판매하는 제품보다 40~50년 전에 생산한 빈티지 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 음장감과 해상력을 중시하는 요즘의 제품에서는 느낄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옛날 소리가 더 좋게 느껴지는 것, 1960~70년대 자신이 젊을 때 들은 소리를 다시 찾아가는 것 등은 오디오를 취미로 삼은 이들이 누릴 수 있는 호사 중 하나일 것이다.

**노르망디 스펙트라 푸투라**(Nordmende Spectra Futura)는 레이먼드 로위가 1960년대에 디자인한 라디오로, 디자인뿐만 아니라 음질도 뛰어나 이 시대 최고의 라디오로 꼽는다. 주파수 맞춰 라디오 듣던 옛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제품이다. **브리온베가 RR126**(Brionvega RR126)은 아킬레 카스틸리오니가 디자인한 1966년 제품.

사진처럼 앰프 위에 스피커를 올려 큐브 형태로 하거나, 앰프 양옆에 장착하여 가로로 긴 형태를 만들거나, 아래 분리해 놓는 등 3가지 형태로 스피커를 세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sabo collection



## Goldmund

현존하는 수십여 가지의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중 가장 높은 가격과 하이테크놀로지를 자랑하는 하이엔드 디지털 오디오 브랜드로 가수 마돈나,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등이 애용한다. 모든 제작 과정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새로운 모델은 짧게는 5년에서 20여 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탄생한다. 특히 골드문트가 자랑하는 '프로테우스' 기술은 20여 년의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로 스피커가 재생하는 여러 높낮이의 소리가 청취자의 귀에 동일한 속도로 정확하게 도달하게 하는 기술로 실제 재생되는 음악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전달하는 기술이다.

회전할 때 진동을 최소화하는 마그네틱 램프를 장착한 **에어도스 20BDU** 플레이어, 프로테우스 멀티시스템을 갖춘 미에시스 16 디지털 앰프, 음 이탈을 최소화하는 **로고스 1+2** 프로테우스 스피커, 오디오갤러리



## B&O

우리의 삶에 친근하게 다가오는 디자인을 통해 인간의 감상에 어필하는 제품을 선보인다는 모토를 가진 뱅앤올룹슨은 스타일과 멋을 아는 이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이다. **베오사운드 9000**(BeoSound9000)의 디자인 모티브 역시 출음기 사절의 레코드판, CD가 교체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디자인한 이 제품은 음악을 듣기 위해 레코드판을 정성스럽게 닦고, 턴테이블에 올리는 행위조차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에게 더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베오사운드 9000**은 원하는 인테리어 컨셉트대로 책장 위에 반듯이 늘히거나 또는 수직이나 수평으로 세우거나 벽에 거는 등 총 67가지로 바자리를 달라힐 수 있다. 풀 디지털 라우드 스피커 **베오랩5**(BeoLab5)는 앰프와 한 케비닛에 있어 음의 굴절을 자연음에 가깝도록 하여 매인 오디오와 아우디오 멀리 떨어져 있다라도 악기의 연주하는 원래의 소리와 똑같은 생동감 있는 사운드를 들려준다. 특히 ABC(Adaptive Bass Control)시스템은 스피커를 설치한 방의 환경을 자동으로 분석해 최적의 사운드를 재현해주는 기능으로, 원하는 위치에 스피커를 설치하거나 방의 구조를 바꾼 후 스피커의 작은 스위치를 누르면 스피커 하단의 움직이는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파를 분석해 방의 특성에 따라 소리를 재현한다. 뱅앤올룹슨

©조정희(원서판), designhouse

## Wilson Audio

천재적 스피커 설계자 데이브 월슨의 월슨 오디오. 그중

**소피아3**(Sophia3)는 월슨 오디오의 스피커 중에서 입문 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이다. 소피아의 오리지널 모델은 2001년도에 출시되었는데, 10년 동안 소피아1과 소피아2를 거치며 업그레이드된 소피아3는 풍부하고 유연한 소리를 들려주는 스피커다.

최신 스피커들의 소리가 대체로 알고 가벼운 느낌이 드는 대 비해 다소 두텁고 포근하지만 정확한 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과거의 팝음악이나 클래식 음반을 소피아3로 들으면 마치 그 시대의 시스템으로 듣는 따스한 느낌을 준다. 이날로그 소스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제격일 듯하다.

케이원AV



## BOSE

고가의 오디오를 하이엔드라고 부르는 기준에 따르면 보스는 하이엔드가 아닐 수 있다. 그렇지만 음장감에 있어서 가격이 10배가 넘는 하이엔드 스피커에 크게 뒤지지 않을 만큼 좋은 소리를 낸다. 학리적인 가격으로 명품 음질을 접할 수 있는 브랜드이다. 앰프, 스피커 등을 따로 하며 거창하게 오디오에 입문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CD플레이어, AM/FM 라디오, 앰프, 스피커가 통합된 고성능, 고음질의 오디오 어쿠스틱 웨이브 뮤직 시스템 II(Acoustic Wave Music System II)를 추천한다. 발명가상을 받은 어쿠스틱 웨이브가이드(Acoustic Waveguide)라는 특허 기술을 적용하여 풍성한 저음과 명료한 사운드를 재생하는 것이 특징. 색상은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 보스



©조정희(원서판), designhouse

# PEOPLE



지난해 101번째 영화를 선보인 데 이어 최근에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폐막식 총감독에 선임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리고 102번째 영화도 구상 중이라고 했다. 바로 희수(喜壽)의 영화감독 임권택 얘기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용인 자택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임 감독을 만나 식지 않는 열정의 비결을 물었다.

수식은 필요치 않다. 그 이름 앞에는 '거장(巨匠)'이란 두 글자면 충분하다. 지난해 임권택 감독이 101번째 작품을 선보였을 때 사람들은 적이 놀랐다. 100번째를 넘어 이제 101번째라니, 그런 그는 현재 102번째 영화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최근엔 주로 자택에서 "쉬며 시간을 보낸다"고 했지만 아내의 우스갯소리대로, 그는 늘 그렇듯 "몸은 집 안에 머물지만 마음은 벌써 바깥에 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바깥'엔 온전히 영화만이 존재한다.

## 과거를 넘어 거듭나기

여든이 가까운 지금껏 쉼 없이 활동을 이어온 임권택 감독에게 사람들은 묻는다. 어떻게 100편이 넘는 영화를 찍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임 감독은 누차 답해왔다. 100이나 101 같은 숫자엔 아무런 관심

이 없느라고. "지금껏 내가 몇 편의 영화를 찍었는지 헤아려본 일이 없어 요. 뭔가를 기록할 만큼 대단한 것을 일궈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 문에... 100여 편의 영화를 찍는 동안 내가 감독으로서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뭔가 다른 인상을 보여준 적도 없지요. 나는 사실 그런 숫자들을 드러내지 않고 훌쩍 지나감으로써 부담감을 덜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필모그래피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또 기억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세간의 주목에 응한 방식은 참으로 그다운 것이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내가 해온 기왕의 영화들에서 거듭나려고 더욱 노력했지요. 그 점이 아직도 도태되지 않고 살 아남을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지의 제작과정과 우수성을 다큐멘터리 기법으로 담아낸 101번째 영화 〈달빛 길어올리기〉는 그 같은 실험의 주요 무대가 되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자 시도한 〈달빛

길어올리기〉의 작법은 평단과 관객을 모두 놀라게 했다. "그간 내가 해온 영화는 모두 극성(劇性)이 강했어요. 픽션이었던 거죠. 그런 허구로부터 벗어나 다큐라는 새로운 형식을 차용했습니다." 하구적 극성을 배제하고 일상을 무미하게 그려냄으로써 영상 자체의 힘을 살려내고 싶었다는 것.

그의 의도대로 화면 가득 달빛이 넘쳐흐르는 풍부한 영상은 장르적 깊이를 더했다는 호평을 이끌었다.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않았다. "실제로 도전해보니 극성을 배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일각에서는 영화가 더 깊어진 것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지만 재미가 없다는 관객도 많았고... 무리하게 극성을 배제하려 했기에 장르적 재미가 덜하지 않았나. 시간을 가지고 더 연구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02번째 영화에서는 〈달빛 길어올리기〉에서의 부족한 지점을 더 채워 넣을 계획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 영화만 생각하며 살아온 '명청이'

임 감독은 1962년 〈싸받이〉로 데뷔한 이래 지난 50여년간 줄곧 영화와 함께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화 외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 스스로도 "나는 처음부터 평생을 영화만 찍기로 결심한 사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놀라운 고백은 지금부터다. "사람들은 내가 많은 작품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으레 꽤 괜찮은 작품을 뚝딱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나는 그 긴 세월 동안 여러 편의 영화를 만들면서 매 순간이 턱걸이였어요." 결코 타협이란 없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는 늘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 최선의 극단을 선택했다.

그런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영화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 못한 명청이었어요. 영화에만 매달려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다양한 것을 누리지 못했다고, 잃고 살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근자에는 그런 생각이 참으로 사치스러운 것임을 알았어요. 평생 가장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그것과 함께 산 것이 보통 행복한 일인 아닌데, 이 자체로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아채지 못하고 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임 감독은 자신이 만든 100여 편의 영화 가운데 초창기 절반의 작품은 모조리 없애버리고 싶었다고 말한다. 불이라도 나서 뭉탕 타버렸으면... 언젠가는 이런 일도 있었다. TV에서 우연히 60년대식 '저질영화'를 방영하는 것을 보게 됐다. 한참이 지나도록 그것이 자신의 영화인지 몰랐다는 임 감독은 뒤늦게 사실을 알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고.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그런 것조차도 고맙게 느껴지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저급한 영화도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영혼을 걸고 찍었는지..." 그렇지만 여기에 거창한 상찬이 덧붙는 것 역시 그는 원치 않는다. 임 감독은 그저 자신의 나이만큼 살아냈고, 살아낸 그 세 월 만큼 영화로 찍어낸 것뿐이라고 말한다. "딱 그 수준. 나는 천재도, 뛰도 아니니 내 영화는 내가 아는 딱 그만큼." 이 얼마나 군더더기 없는 정의인가.

## 진짜 원하는 일을 찾으라!

그렇다면 임 감독을 여기까지 끌고 온 열정의 비결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 임 감독은 예의 그답지 않게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듯 쉽사리 말을 잇지 못한다. 그리고 얼마 후 조심스레 입을 연다.

"글쎄,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명이 될까. 내 영화 중에 조선 말기의 화가

장승업을 영화화한 〈취화선〉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장승업에 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거리는 턱없이 부족했지. 굳이 화가의 삶을 영화화하고자 했다면 정선이나 김홍도, 신윤복 같은 걸출한 이들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나는 어쩐지 장승업에 끌렸어요. 내 감성에 친숙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그 삶의 행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스무 살에 이미 천재 소리를 들었고 선돌에 행방불명이 됐는데,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금강산 어디 들어가 살았다고 해요. 말 그대로 화선(畫仙)의 경지에 이른 것인가. 어찌다 한번 천재 소리를 듣는 쉬워도 그것을 쉰이 넘을 때까지, 그리고 행방이 묘연해진 밀년까지 계속 들으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는 것, 그건 그만큼 삶을 치열하게 살아냈다는 증거라고 봐요. 나는 알 수 있지요. 그만한 천재는 아니지만, 나 역시 참 열심히, 쉼 없이 살았으니까..."

아울러 임 감독은 평생 남들이 하는 일을 무작정 쫓아 한 적도, 기왕에 해놓은 작은 성과에 머무르려 한 적도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노라고 강조한다. "실패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까 두려워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 역시 많은 실패를 했고... 그냥 저질러보는 거예요. 여기서 안되면 끝이지, 하는 생각으로."

이런 그는 영화거장이기 이전에 이미 한 사람의 스승이라 해야 옳다. 그에게 멘토로서의 조언을 부탁하자 명쾌한 대답이 돌아온다. 진정으로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는 것. 그것이 바로 열정의 진원지가 되어줄 것이라고.

"좋아하는 일을 쉽게 만날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간을 갖고 찾아보세요. 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미없는 일을 한다는 것은 불행이지요. 정말 즐거워서 자신을 온전히 다 쏟을 수 있는, 미쳐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나야 해요. 그리고 그것에 평생을 열중하세요."

40~50대 역시 마찬가지다. 이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다르지 않다. 50대에 은퇴를 경험한다 해도 아직 시간은 많다는 것. 바야흐로 100세 시대가 아닌가. 기왕의 하던 일을 이어 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새롭게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바보스러운 생각에 머무르기보다는 은퇴 이후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앞으로 30~40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누차 힘주어 말하는 그다.

## 끊임없는 도전, 102번째 영화 구상 중

이제 임 감독은 다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폐막식 총감독으로 대중 앞에 서게 되는 것. 영화를 통해 줄곧 우리 민족의 수난과 질곡을 이야기해온 그에게 이 세계적인, 그러나 자극적 한국적인 무대는 색다른 실험의 장이 될 것이다.

"그간의 이 같은 대회가 강대국의 위상을 과시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이번 대회는 진정으로 각국의 순수한 화합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문화가 한자리에 모이는 소통의 장 말이지요. 우리나라 역시 분명 자랑거리가 있고, 그 문화적·전통적 개성을 잘 녹여내어 행사를 꼬며 볼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모두가 고대하는 102번째 영화는? 단지 "때가 되면..."이라는 정도로 말을 아끼는 임 감독. 하지만 그의 얼굴엔 새록새록 소년의 설레는 빛이 어린다. 그렇다. 거장은 멈추지 않는다. 다만 더욱 뜨거워질 뿐인 것이다.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바보스러운 생각에 머무르기보다는 은퇴 이후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30~40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 MY MOVIE

## 내 인생 한 편의 영화

사칠리아 섬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소년 토토. 그는 평생 영화를 지향분으로 성장해간다. 현실은 〈시네마천국〉이 될 수 없지만 우리는 때때로 토토와 같이 스크린 앞에서 울고 웃는다. 한 편의 영화로 자친 일상을 치유하기도 하고, 행복한 순간의 풍요를 더하기도 한다. 영화를 사랑하는 각계 명사들이 추억 속에 간직한 인생 최고의 영화를 꼽았다.



박종호 정신과 전문의·풍월당 대표

영화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2009)

도리스 되리 감독의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은 인생을 뒤틀이보게 하는 영화다. 자신의 일에만 성실했던 독일의 평범한 부부, 어느 날 아내 트루디(한별로르 엘스너)는 남편 루디(엘마 웨퍼)에게 불친절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녀는 그 사실을 모르는 척 남편을 즐리 함께 여행을 떠나는데, 정작 여행 도중 먼저 세상을 뜨는 아내 트루디다. 트루디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뜻하지 않게 출로 남게 된 루디는 생전 아내가 원하던 일본으로 떠난다. 그녀가 원했지만 이루지 못한 삶을 대신 살아주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이 영화가 기계적인 일상 속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깨우는 명작이라고 생각한다.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눈물을 참을 수 없다. 잊었던 가치를 다시 깨닫게 된다. 특히 웅장한 후지산의 풍경을 앞에 두고 아내를 그리며 어설픈 부토(butoh)를 주는 남편 루디의 모습을 담은 장면은 볼 때마다 가슴을 울컥하게 만든다. 베를린과 도쿄를 찾는 아름다운 영상은 영화의 장점을 새삼 느끼게 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인상적인 장면 일본에 도착한 루디는 코트 속에 아내의 옷을 입고 봄꽃이 만발한 광원을 거닌다. 그러나 코트 자리를 훤히 펼쳐 보인다. 비록 아내는 세상에 있지만 그녀의 웃더라도 그토록 와보고 싶어 하던 일본과 봄꽃을 만끽할 수 있도록….

박주만 이베이코리아 대표이사

영화 〈파이터〉(2010)

지난해 해외출장에서 이베이(eBay) 존 도나호 회장의 추천을 받아 보게 된 영화다. 복싱에 재능을 보이는 주인공 미카(마크 월버그)는 자신을 키워주겠다는 복싱프로모터의 제안을 뿌리친다. 대신 왕년에 잘나가는 복서였지만 현재는 미약증독자로 전락한 형 딕(크리스찬 베일)을 트레이너로 삼는다. 그리고 끝내 승리를 정취한다. 〈파이터〉는 스포츠영화이자 가족영화다. 그러나 전형적 문법과는 다르게 그려졌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미카를 중심으로 통제적인 엄마,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미약증독자 형, 의존적이지만 누나들… 보통의 가족영화에서 가족 개개인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리는 주인공의 든든한 보조역이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영화의 가족은 성공을 방해하고 간섭하며 때로는 걸림돌이 된다. 그런 가족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주인공의 길들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링에서 주인공은 형의 충고대로 결정적 순간에 상대방을 정확히 공략한다. 주인공에게 KO승이 선언되는 순간 나는 키티르스를 느꼈다. 어려 방해 요인 속에서도 목표를 향한 강력한 집중력을 발휘하고 적절한 흥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어떤 스포츠든 혹은 어떤 경영 상황이든 유료한 전략이라고는 것을 가르쳐 준 영화다.

인상적인 장면 기억할 만한 대사가 있다. “머리, 몸통, 머리, 몸통!” 매니저를 자처하며 자신을 육아했던 가족들과 결별해 새로운 매니저와 함께 승승장구하던 미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교도소에 수감된 형 딕을 찾아가 상대방 공격법을 물었을 때 형의 대사다.

몸에 힘을 빼고 머리와 몸통을 교대로 공략하라는 것. 미카는 결국 이 전략으로 승리를 거두고, 유망한 트레이닝팀을 떠나 다시 가족에게 돌아간다. 이 대사는 미약증독자 형이 트레이너로서 자신의 가치를 동생에게 증명하는 한편, 이기적인 가족들을 동생의 온전한 성공을 위해 한데 모으는 미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 정곡을 찌르는 형의 전략과 그것에 대한 동생의 고지식한 믿음. 그것이 단순히 한 복서의 탄생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용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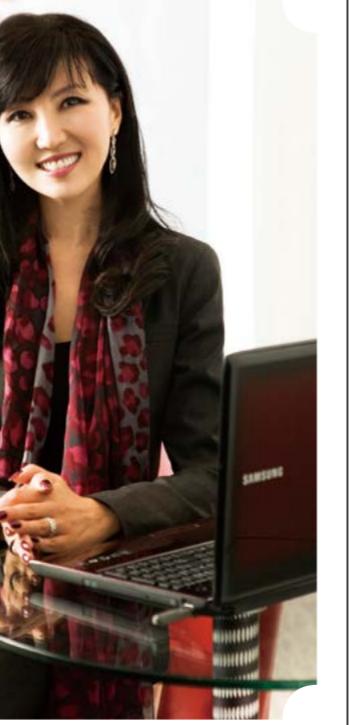
부산국제영화제 진행위원장

영화 〈비보들의 행진〉(1975)

최인호의 소설을 영화화한 하길종

감독의 〈비보들의 행진〉은 1970년대 젊은人们的 우울한 자화상을 풍자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 병태(윤문섭)와 영철(하재영)이 미팅에 가려고 한껏 맛을 부린 채 거리에 나서는 순간 장발 단속 경관이 그들을 쫓아온다. 도망하는 주인공들의 모습 뒤로 송창식의 '애 불러'가 울려 퍼지는 장면은 매우 유명하다. 장발 단속을 비롯해 미팅, 휴강, 입대 등 당시 대학생의 풍속도를 내 젊은 날의 차지와 너무나 흡사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 내가 이 작품을 인생 최고의 영화로 꼽는 이유다. 유탤 영화를 전공하게 되면서 다시 〈비보들의 행진〉을 보게 됐고, 이후 나는 언제나 이 영화를 잊지 못할 영화로 마음속에 두고 있다. 이율리 영화학자로서, 평론가로서 영화이론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비보들의 행진〉이 영화 형식과 스타일 면에서도 매우 뛰어난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한국영화의 내리티브와 스타일, 이데올로기의 핵심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립하는데 초석이 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인상적인 장면 영화의 모든 장면. 수많은 장면이 하나의 미장센처럼 언제나 내 삶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경아 SM C&C 사장

영화 〈로마의 휴일〉(1953)

미국에서 보낸 중학생 시절, 나의 취미는 집에서 비디오 플레이어로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었다.

〈로마의 휴일〉도 그때 처음 봤다. 아버지는 오드리 헵번을 찬 좋아하였다. 헵번이 등장하는 영화를 즐겨 보고 하셨는데 그때마다 나도 엄마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본 기억이 있다. 화면 속 헵번의 이름답고 청순한 이미지는 동경의 대상이 됐고, 지금까지 나는 가장 좋아하는 배우로 헵번을 꼽는다. 헵번이 나온 영화 가운데 최고는 단연 〈로마의 휴일〉. 남녀 간의 애정하고 순수한 사랑의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헵번의 해맑은 얼굴, 사랑스러운 미소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로마의 휴일〉을 세기의 명작으로 기억되도록 만든 것 같다.

인상적인 장면 흑백영화 속 로마를 보면 지금도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영화 속 로마는 그만은 아름다워 보인다. 헵번의 젊은 머리와 귀여운 옷차림이 현장의 생동감을 더하는 것 같다. 마치 그녀와 함께 로마 곳곳을 여행하고 있는 느낌이랄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스페인광장에서 앤(오드리 헵번)과 조(그레고리 펙)가 손을 잡고 걷는 장면.

그리고 조가 “진실의 입”에 손을 넣어 앤에게 장난을 치는 장면이다. 그곳 영소들은 지금까지도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다. 스페인광장 주변 가로수의 생김새까지 거의 똑같다. 앤 공주의 기자회견을 마친 후 조가 혼자 밖으로 걸어나가는 마지막 장면은 지금까지도 잊지 하지 않는다. 헤파인딩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4 슬라이드는 긴단하지만 강렬하게 만들어라

복잡한 슬라이드만은 이기적인 프레젠테이션은 없다. 텍스트를 최소화하고 메시지를 유추할 수 있는 이미지로 무장한 슬라이드를

# T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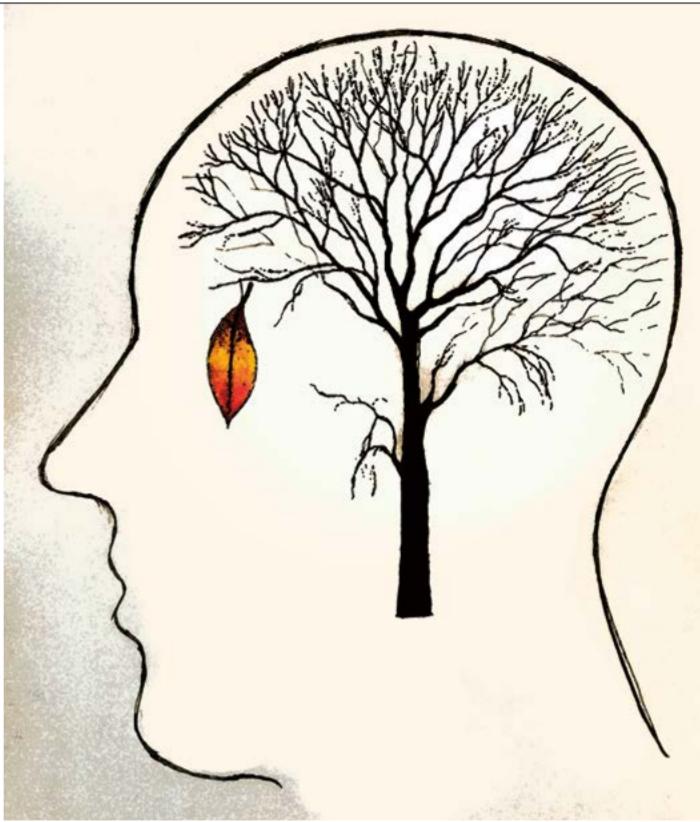
## ‘가을 남자’를 위한 우울증 치방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지는 소리를….”  
별다른 이유 없이 기분이 울적해진다면 기울이 온 게 틀림없다. 가을만 되면 찾아오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은 주목하라.

부쩍 쌀쌀해진 날씨 탓이려니 생각하지만, 가을을 타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 학계에서는 이를 ‘계절성 우울증(Seasonal Affective Disorder)’이라고 부른다. 전문의들은 대개 특정 계절에 우울증이 발생하는 것이 연달아 2회 이상 계속되면 계절성 우울증으로 본다. 미국정신의학회(APA) 연구에 따르면, 일반인의 10~20%가 가벼운 계절성 우울증을 겪고 있다. 계절성 우울증은 일조량 감소라는 계절적 특성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다.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손상준 교수의 설명은 이렇다. “인간의 뇌에 의해 생체 리듬을 조절합니다. 빛은 시신경에 의해 감지되며 이는 뇌의 송과선과 시상하부를 자극해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줍니다. 가을에 우울증이 심해지는 것은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드는 대신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세로토닌은 감정과 관련된 신경전달물질인데 부족하면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 가을만 되면 살찌는 사람?

재미있는 사실은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뚱뚱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우울증 환자는 입맛을 잊고 수면장애



쬐며 산책하기, 규칙적인 생활리듬 유지하기, 유산소 운동하기, 신선한 과일과 채소 섭취하기, 비타민 복용하기 등 의 방법도 좋다.

이 같은 일련의 방법으로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계절성 우울증은 일반 우울증과 달리 신체 리듬을 교정하는 광선치료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다. 광선치료는 인위적인 빛을 쪼여 생체 리듬을 바로잡는 것이다. 광선박스(light box)를 눈높이에 두고 30~90cm 떨어져 앉아 편안하게 빛을 쪼이면서 책을 읽는 등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 시간은 3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되며, 치료 기간은 1~2주일 가량이다.

###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 아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 가을에 않는 계절성 우울증은 남자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 흔히 여자는 봄을 타고, 남자는 가을을 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다. 손 교수는 “계절성 우울증은 오히려 여자들에게 많이 발생한다.”며 “여성이 감성적으로 주변 환경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40~50대 중년 주부들은 특히 가을을 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가을만 되면 팬스레 외로워지는 남자들은? 손 교수는 말한다.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의 역할을 고려해보면 알 수 있죠. 한 해 동안 일어난 다사다난한 일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현상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프레젠테이션을 두려워 말라

사람들 앞에만 서면 아직도 다리가 후들거리는가. 긴장과 걱정은 이제 그만. 스티브 잡스처럼 좌중을 압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 〈CEO를 감동시키는 프레젠테이션의 비밀〉의 저자로 유명한 비즈스킬연구소 밴드웨인의 빅혁종 대표가 귀띔하는 몇 가지 노하우.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세 가지다. 이를하여 ‘프레젠테이션 삼합(三合)’ 첫째, 매력적인 메시지 구성. 둘째, 강하고 인상적인 자료 작성. 셋째, 맛깔난 실행.

이 세 가지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었을 때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다. 하지만 어떻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박 대표는 일곱 가지 주요 포인트를 짚었다.

1 혁신메시지를 명확히 하고, 처음부터 화끈하게 말하라

프레젠테이션은 단거리 달리기와 같다. 때문에 초반에 몸을 성공하는데 관건이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단 하나로 집약한 다음 처음부터 정확하고 간결하게 메시지를 인식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반영해, 진행 방향은 반드시 수평으로, 좌에서 우로 표현하라. 그래야 가장 빠른 인식을 부릴 수 있다.

### 2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하라

재미없는 프레젠테이션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시간을 초과한 프레젠테이션은 용서받을 수 없다. 청중은 예정된 시간에 끝나는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시간에 쫓겨 급하게 마무리 한 듯한 느낌을 피해야 드리마틱한 프레젠테이션의 전율과 진상을 넘기게 된다.

3 매력적인 오프닝과 엔딩을 연출하라

뻔한 설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청중의 뇌 속에 오래 남고 설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와 예시다. 가장 적절한 사례를 만들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라

4 청중을 참여시켜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존중받고 싶어 하고 참여하고 있는 느낌을 가지길 원한다. 청중 또한 자신이 직접 말을 하자는 않더라도 일부 장면에서는 자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기대한다. 따라서 청중이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퀴즈를 던지고 쉬운 질문을 던져면서 손을 들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

이 밖에 주의를 기울여 할 수 있는 요건들도 있다. 특히 표정이나



유머사례는 프레젠테이션에 적합은 영향을 미친다. 박 대표의 설명이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자신이 보고 있는 사람의 표정을 90% 따라 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야기하는 메시지에 부합하는 감정의 표현을 과감하게 하면 청중의 감정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슬픈 메시지를 던질 때엔 징그린 표정을, 기쁠 때는 웃는 표정을 얹거나 라도 만들어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유머나 웃기는 프레젠테이션의 좋은 친구다. “유머는 초반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마치 자신이 겪은 실화처럼 각색해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중을 더욱 더 몰입시킬 수 있죠.”

# FINANCE

## 연령대별로 따져보는 보험 설계 가이드 내게 맞는 보험을 찾아라

은퇴 이후는 치열한 사회적 경쟁 속에서 한 걸음 물러나 좀 더 편안하게 나 자신을 향한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근사한 시기이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면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재정적 요소. 미래는 미리 준비하는 자의 뜻이니, 더 늦기 전에 노후 설계를 시작하자.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블 세대를 '단카이 세대(團塊世代, 일본 경제기획청 장관을 지낸 경제평론가 사카이야 다이치가 1976년 발표한 <단카이의 세대>라는 소설에서 처음 등장하여 인구사회학적 용어로 정착되었다)'라고 부른다. 이들 이 은퇴하기 시작한 2007년을 '2007년 쇼크'라고 부르는데, 쇼크라는 표현을 쓴 것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의 은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712만 명, 인구대비 14.6%)는 단카이 세대보다 훨씬 많고 저출산·고령화와 겹치면서 이들의 은퇴 여파 또한 점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그에 따른 사회 안전망은 부족하여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개인별 은퇴 준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 연령대별로 준비해야 할 은퇴 이후의 보험(실비보험)을 소개한다.

**40대**는 자녀 교육비 부담과 내 집 마련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이다. 그러나 자식과 부동산에 매몰돼 은퇴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보장성 보험은 한시라도 빨리 준비할수록 보험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 보험 만의 독특한 이자부리 방식인 복리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으므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

**①보장보험:** 40대의 경우, 은퇴예상 시기에 다가가는 만큼 경제활동기에 납입을 원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실손의료비를 필수로 하여 가능하면 다양한 상해·질병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커버리지를 넓게 가입할 것을 권한다. 가장이라면 본인의 유고 시 가족의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금이 월급처럼 지급되는 소득보장보험을 기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부상하고 있는 LTC보험(장기간병보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좋다. LTC보험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바탕으로 하는데,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등의 노인성질환 기입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가 될 경우 요양간병비나 간병연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보험이다.

### LTC보험 비교, 최고급 예시

구분	LG손해보험 (100세 LTC간병보험)	A사	B사
요양간병비	1억6천만원	1억원	1억3천2백만원
간병연금	매월 30만원(총60회)	매월 40만원(총60회)	30만원(총60회)

**②연금·저축보험:** 은퇴와 연금개시 시점을 연결하는 '브릿지연금'으로, 만일의 경우 일시 해약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해 분기 단위로 계속 가입하는 방법을 권한다. 예를 들면, 10년 만기로(3년 납입 7년 거치) 1월에 보험(월보험료 10만원)을 기입하고, 4월에 또 다른 보험(월 10만원)을 신규로 기입해 4월에는 1월에 기입한 보험료까지 총 20만원의 월보험료가 되는 식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10년 뒤부터 매 분기마다 일정금액이 들어오게 되므로 생활지출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금융기관별로 5000만원까지 보호되므로 부부가 각각 가입하는 것이 좋다.

김영옥 씨는 LG손해보험 다이아인슈 대표로 매출대상 기수상자 중 연간 최고 성과자에 선정되는 크리운멤버 다이아몬드상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한 실력파 피아너스 컨설턴트이다.

# LOOK

## 니트의 계절, 당신의 선택은?

이 계절 남자의 분위기를 살리는 패션 아이템은 단연 니트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언제나처럼 멋진 민무늬 니트, 그것도 블랙과 네이비 사이를 오가며 갈등할 것인가. 하지만 생각해보자. 지금도 옷장은 충분히 아둡고 칙칙하다. 진정한 멋쟁이로 거듭나고 싶다면 기존의 베이식한 스타일에서 한 걸음 물러날 필요가 있다. 조금 과감해지거나 혹은 아기자기해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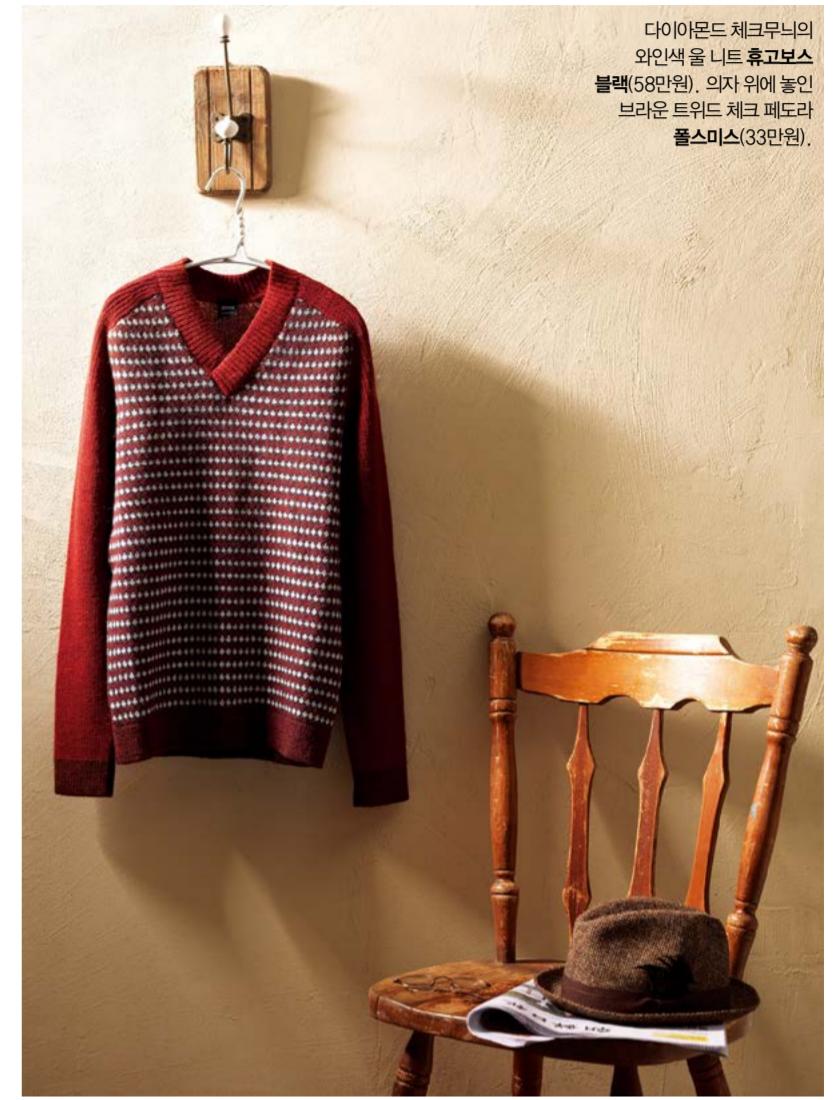
울가을 니트는 보다 밝고 경쾌해졌다. 감정, 그레이, 네이비 같은 기존의 어두운 컬러에서 과감히 벗어날 것. 대신 퍼플은 계열을 권한다. 퍼플은 니트의 세련미와 고급스러움을 간직한 최고의 색이라 할 만하다. 자연스러우면서도 기품 있는 기울 남자의 분위기를 한층 더할 것이다. 퍼플바이올렛 색상의 V넥 캐시미어 니트 브리오니(168만원).



젊은 감각을 뽐내고 싶다면 디테일에 침중하라. 팔꿈치 부분에 아플리케를 덧댄 니트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플리케 장식이 모인트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액세서리 없이도 캐주얼하면서 경쾌한 분위기를 낼 수 있다. 전한 카키그린색 캐시미어 니트 로로피아나(143만원). 회색 바탕에 여러 가지 패턴을 수놓은 빙모 니트 프랑코페라로(가격 미정).



트위스트 짜임의 '파베기 니트'는 심심함을 덜어주면서도 디자인이 과하지 않아 많은 팬을 거느린 스테디셀러 아이템이다. 올가을엔 비비드한 컬러가 대유행. 화려한 색상에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어떤 차림에도 유연하게 매치할 수 있는 게 꽈배기 니트의 장점. 흰 와이셔츠나 남색 재킷 등과 함께 코디하면 비즈니스룩도 무리 없이 완성된다. 오렌지색 램스울 니트 앤스미어(29만원), 노란색 울 니트 휴고보스 블랙(56만원).



다이아몬드 체크무늬의  
와인색 울 니트 휴고보스  
블랙(59만원). 의자 위에 놓인  
브라운 트위드 체크 페도라  
풀스미스(33만원).



풀오버 니트는 몸을 둘러싼 독특한 디자인 자체로 충분히 멋스럽다. 헐렁하게 입는 것도 좋지만 속에 입은 셔츠를 걸쳐 입으면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단, 상체가 통통하거나 목이 짧으면 악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단추를 징식한 캐멀얼로 색상의 캐시미어 니트 로로피아나(199만원). 노르딕 패턴에 레드와 네이비가 어우러진 울 니트 제니스포츠(가격 미정).



보다 남성다운 분위기를 원한다면 멀티 프린트에 도전해보길. 여러 가지 형태의 하려한 줌무늬에 명예한 배색을 기반으로 한 활동적인 느낌을 극대화한다. 간격과 크기가 다른 줌무늬는 시선을 분산해 날씬해 보이는 효과도 있다. 짙은 색상의 멀티 스트라이프 니트는 흰색이나 베이지색의 단순한 면나일을 매치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V넥 울 니트 미쏘니(가격 미정). 임창색 라운드 니트 풀스미스(49만원).

# THIS CAR



혁신과 전통에 '배려'를 더했다

## 2013 제네시스 프라다

제네시스 프라다가 변신을 시도했다. 지난달 24일, V6 란다 3.8 GDi 엔진을 추가한 'GP380' 모델을 선보인 것. 고배기량 차를 운행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여성고객층을 위한 배려다. 명품의 자태를 유지하면서도 고객에게 한발 더 다가서기 위한 세심한 배려. 프리미엄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2013 제네시스 프라다'의 숨은 매력을 조명한다.



명품 패션브랜드 프라다와 '모던 프리미엄'으로 대표되는 현대자동차 간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지난해 5월 탄생한 제네시스 프라다는 그간 특별한 품격을 원하는 소비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왔다. 프라다 가죽으로 만들어진 시트의 스티치 짚기까지 한땀한땀 세밀하게 조정해가며 2년간의 공동작업 끝에 탄생한 제네시스 프라다는 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세계적인 패션하우스와 협업을 이뤄 국내 프리미엄 세단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첫 차를 선보인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9월, 현대자동차는 고유의 가치는 유지하되 혁신을 더한 '2013 제네시스 프라다'를 내놓았다.

### '화려한 퍼포먼스와 '부담 없는 기품'을 아우르다'

이번에 출시된 2013 제네시스 프라다는 기존 V8 타우 5.0 GDi 엔진을 탑재한 'GP500' 모델 외에 V6 란다 3.8 GDi 엔진을 탑재한 'GP380' 모델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 가장 큰 특징. 차를 직접 운전하는 여성 고객 등 고배기량 차 운행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5000cc급 배기량의 'GP500' 단일 모델만을 운영해왔다. 'GP380'은 최고 출력 334마력, 최대 토크 40.3 kg·m, 연비 9.3 km/ℓ

의 강력한 동력성능과 더불어 대형차 최고수준의 경제성도 확보했다. 이로써 제네시스 프라다는 기존 타우 5.0 GDi 모델과 란다 3.8 GDi 모델 두 가지 라인업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명품다운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화려한 퍼포먼스와 '부담 없는 기품'을 원하는 다양한 소비층을 모두 아우를 수 있게 됐다. 류창승 현대자동차 국내판매전략팀장은 "기존 GP500 모델은 소수 마니아층 고객에게 인기가 높았다. 대형 배기량 모델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 고객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배기량을 3800cc급으로 다운사이징하고 더불어 가격도 함께 내렸다"며 "제네시스 프라다만의 가치와 품격을 조금 더 많은 고객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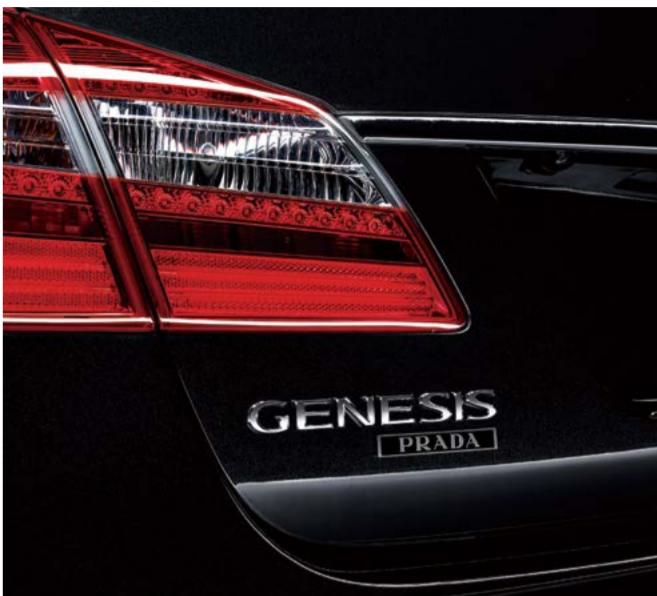
###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자부심을 더하다

새로 출시된 제네시스 프라다는 역시 곳곳에서 디테일의 완성도를 느낄 수 있다. 프라다 고유의 사파이어노 패턴을 적용한 천연가죽으로 크래쉬 패드와 도어 트림, 시트 등 실내를 마감해 명품 세단의 가치를 완성하고, 부드럽고 섬세한 느낌의 최고급 알칸타라 가죽으로 운전석과 천장, 사이드 필라 부분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특히 프라다 가죽을 이용



▲ 2013 제네시스 프라다는 V8 타우 5.0 GDI 엔진을 탑재한 'GP500' 모델 외에 V6 란다 3.8 GDI 엔진이 탑재된 'GP380' 모델을 추가했다.

▶ 프라다 고유 서체로 제작한 엠블럼을 트렁크 왼쪽 아래에 부착해 제네시스 프라다만의 자부심을 더했다.



해 만들어진 시트 부분은 스티치 짚기를 수작업으로 한땀한땀 조정하는 등 프라다와 현대자동차 간 각별한 노력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차량 색상은 프라다 전용 컬러인 블랙 네로, 블루 발티코 색상의 경우 블랙과 블루의 절묘한 조화 속에 푸른빛이 은은히 도는 아주 특별한 색감으로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의 컬러다. 또한 고유 서체로 제작한 신규 'PRADA' 엠블럼을 리어 트렁크 왼쪽 부분에 부착해 외관의 차별화를 더욱 강조한 것도 눈에 띈다. 이 외에도 프라다에서 직접 디자인한 19인치 알로이 휠과 외장 안테나, 동승석 플로어 콘솔 옆면에 제네시스 프라다의 로고와 차량 고유번호가 새겨진 '시리얼 넘버 플레이트'를 부착했다.

류창승 부장은 "2013 제네시스 프라다는 프라다의 디자인 아이덴티티와 품질을 대표하는 상징적 소재를 사용해 기존 제네시스 고유의 스타일 속에서도 프라다만의 감성을 새롭게 입혔다"고 말했다.

**"대형 배기량 모델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 고객들의 운전편의를 위해 3,800cc급 신모델을 선보이고 가격도 내렸다. 명품의 아우라는 고객에 대한 '배려'를 통해 더욱 빛이 난다."**

### '첨단'으로 마무리하다

2013 제네시스 프라다는 혁신적인 디자인에 걸맞게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명품 이상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3D 지도 표시 기능을 추가한 신규 DIS II 내비게이션을 장착해 인지기능을 높였을 뿐 아니라 통합 조작 키와 문자 입력 화면의 터치 스크린 기능을 더해 운전자의 사용 편의성과 주행 중 안전성을 강화했다. 현대자동차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신개념 텔레메티cs 서비스 블루링크(Blue Link)가 2013 제네시스 프라다에 적용되는 것도 특징이다. 블루링크는 차량에 IT 기술을 접목해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거리에 관계없이 원격시동, 에어컨, 헤터 등 공조장치 제어, 주차위치 확인 등 차량의 원격제어가 가능할 뿐 아니라 소모품 관리, 고장진단 등 차량관리와 긴급구조, 도난추적 등과 같은 안전보안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제네시스 프라다는 혁신적 명품의 상징답게 판매 단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다. 차량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현대자동차와 프라다가 공동 개발한 사파이어노 패턴 가죽의 키홀더와 북케이스를 함께 증정한다. '1대 1 딜리버리 서비스'를 통해 구매 고객의 차량은 특수 제작한 트레일러에 실어 해당 고객의 집 앞까지 배달해준다. 이 밖에도 제네시스 프라다 고객만을 위한 고품격 문화공연초청, 회원제 골프장 무료 라운딩 등 차별화된 멤버십 서비스로 차원이 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류창승 부장은 "자동차는 수 만개 부품으로 이뤄진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며 "여기에는 명품 패션브랜드의 감성과 장인정신 그리고 최신 텔레메티cs 장치를 더해 '첨단', '전통', '미래'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모두 지닌 차는 2013 제네시스 프라다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출시된 2013 제네시스 프라다의 판매가격은 GP500 모델 7천 662만원, GP380 모델 6천 975만원이다.

# COMMUNITY



## 유어스테이지 SN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출시

시니어 전문 기업(주)시니어파트너즈(www.yourstage.com)는 10월 초 유어스테이지 SN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SNS 모바일)을 출시한다. 이에 따라 기존 웹 기반 SNS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SNS 모바일은 위치기반서비스(LBS)를 토대로 개발됐다.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지도상에 자신의 위치를 표시하고 글이나 사진을 등록하면 그 위치 근처에 있는 친구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얼음땡', '긴급 호출', '안부 알림' 등 웹 서비스에 없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얼음땡 서비스는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한 '얼음땡' 놀 이를 모바일 환경으로 옮겨온 것으로 현재 내가 있는 장소에 얼음을 표시하면 친구들이 '땡을 해주는 위치' 기반의 소셜 게임 서비스이다. 긴급 호출 서비스는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버튼을 누르면 자신의 위치를 가족이나 친지에게 알려주며, 안부 알림 서비스는 오랫동안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는 친구들의 안부 알림 메시지를 전달한다. SNS 모바일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 모두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오는 10월 4일~5일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2012 서울국제시니어엑스포에서 방문객 대상으로 체험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 '무한도전 달력' 부럽지 않은 '우리 가족 달력' 만드는 시니어 클럽 '작은나무 열매'

유어스테이지 클럽 '작은나무 열매'는 포토샵을 배우는 시니어들의 모임이다. 2011년, 50~60대 시니어들이 마냥 어렵게만 느끼는 컴퓨터를 좀 더 친숙하게 다뤄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컴퓨터를 이용해 자신만의 디자인 작품을 만드는 것을 클럽 회원들의 목표.

'작은나무 열매'는 이를 위해 회원 대상의 포토샵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포토샵을 잘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회원 대상으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토론하고 배워나가는 자리이다. 올 초부터는 포토샵으로 2013년도 캘린더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현재 클럽 회원 수는 234명으로 매월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며, 온라인상에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

이 클럽의 운영자인 조희준 씨는 30년 경력의 광고편집 디자이너이로, 현재 광고편집·인쇄제작 회사를 운영 중이다. 바쁜 회사 업무에도 불구하고 동년대 시니어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아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있다. 신청은 클럽 홈페이지(<http://club.yourstage.com/tree>)를 통해 하면 된다.

## 양 선생에게 물어보세요

임명주 케어코디네이터 경 사회복지사는 1976년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COSCA 상담과정을 수료했다. 상담학 석사·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받고 현재 세계적인 비의료 시니어케어 전문 기업(주)홈인스테드코리아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굿핸즈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다.



**Q** 외국인 동료의 아버님이 이번 가을에 손주들을 만나기 위해 한 달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 동료는 아버지가 오신다니 반갑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병으로 거동이 다소 불편하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정기적으로 홈케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지만,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듯합니다. 그렇다고 아들 내외가 직장을 마치고 올 때까지 집 안에만 계시게 할 수는 없고 말입니다. 혹시 외국인 대상 서비스도 가능한지요? (50세, 남성)

**A** 당연히 가능합니다. 미국 오마이애에 본사를 둔 홈인스테드 시니어케어는 전 세계 17개국 900여 곳에 기관점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비의료 홈케어 서비스 기업입니다. 미국 본사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 고객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가 가능한 케어기버를 갖춰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고객의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어느 프랑스 고객은 지난해 아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한국을 방문해서 여름휴가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분은 한쪽 다리에 보조기를 착용하고 생활하는 분이었습니다. 오전에 저희 케어기버가 방문해서 사워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필요에 따라 개인적인 심부름 서비스와 산책에 동행해드렸습니다. 자녀가 업무를 보는 동안에는 이처럼 케어기버가 보살펴드리고, 오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서울의 명소를 찾았더니며 휴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산정수술을 위해 국내 병원에 입원한 캐나다 고객의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의료진이 24시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어서 치료를 받는 동안 여유로도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기에 있다 보니 더욱 예민한 상태였는데 영어가 가능한 저희 케어기버가 보살펴드린 덕분에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초행인 고객의 보호자에게도 필요한 도움을 드려 어려움 없이 치료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문의를 주신 외국인 고객의 경우 거동이 다소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산책이나 이동, 목욕 도움 등 신체활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케어기버가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울려 한국의 주요 관광지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해드립니다.

부모님에 관련된 걱정이나 궁금증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케어코디네이터 양 선생님이 꼼꼼히 살펴보고 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연이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문의 [yang@homeinstead.co.kr](mailto:yang@homeinstead.co.kr)

**Home Instead**  
시니어 케어

가족처럼 돌보는 어르신의 동반자  
문의 (02) 3218-6243 [www.homeinstead.co.kr](http://www.homeinstead.co.kr)

홈인스테드 시니어케어는 1994년 미국에서 설립된 세계 최대의 시니어케어 전문 기업으로 전 세계 17개국, 900여 개의 네트워크를 통해 오랫동안 검증받은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홈인스테드코리아는 이와 동일의 서비스를 한국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기버(CAREGiver™)'는 3단계 채용 과정을 거치고, 상시 교육과 밀착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믿고 어르신 케어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 HEALTH

## 시니어의 건강지킴이 紅蔘

예로부터 오복(五福)은 건강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웰빙(well-being)', '로하스(LOHAS)', '힐링(healing)' 등의 라이프스타일 키워드로 이어져 왔고, 나아가 최근에는 건강을 선물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한 식품회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9000여 명의 응답자 중 약 25%가 추석선물로 홍삼과 오메기 등의 건강기능식품 구입 의사를 밝혔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67.9%의 응답자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로 건강 관련 제품을 꼽았다. 올 추석 명절에는 가족과 친인들의 행복을 기원하며 건강을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

추석을 즐기는 가을 환절기에는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 신체균형을 잃고 저항능력이 떨어져 건강 유지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체감하게 된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환절기의 기온변화에 빨리 적응하지 못해 더욱 쉽게 피로가 누적되고 전체적인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비염·천식 등의 질환에 걸리기 쉽다.

이런 때 부쩍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다름 아닌 건강기능식품. 그중에서도 홍삼은 면역력 개선, 피로 해소, 기억력 개선, 혈행 개선, 항산화 효과 등의 기능성을 인정 받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많이 찾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최근에는 기본적인 기능에 더해 마늘이나 협개나무, 구기자, 석류 등 성별·연령 대별로 필요한 성분이나 기능을 추가 보강한 기능성 홍삼제품이 자가 소비용뿐만 아니라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KGC인삼공사에서 제안하는 기능성 홍삼제품을 살펴보자.



### 중년 여성의 안티에이징

40대 이상의 여성들이 건강과 함께 가장 관심을 쏟는 것은 역시 안티에이징(Anti-aging)이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함께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외모를 가꾸고, 더불어 갱년기 증상까지 개선할 수 있다면 긍상첨화, KGC인삼공사는 지난 5월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홍삼의 항산화 기능을 개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러한 홍삼의 안티에이징 기능으로 중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바로 정관장 '화애락본(本)'이다. 화애락본은 주성분인 6년근 홍삼과 중년 여성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작약, 대나무잎, 복령 등 5종의 생약으로 제조한 식물혼합농축액, 대두추출물분말 등의 기준 성분에 크랜베리추출물과 레몬밤 추출물, 페각발효유기산갈증 등의 기능성 원료를 더했다.

홍삼은 에너지 생기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조절해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 식물혼합농축액 성분 중 하나인 작약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간의 회를 제거하고 위·장·자궁의 평활근 억제, 관동맥 확장, 중추신경 억제 효과와 항산화 기능까지 공식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받은 홍삼. 그러나 몸에 좋다고 무턱대고 먹기보다는 연령이나 성별을 고려해 어떤 기능과 성분이 내 몸에 필요한지 한번 더 생각해보고 꼼꼼히 골라 섭취하는 게 현명하다.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든 요즘,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이번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스스로 내 몸에 필요한 홍삼제품을 골라보면 어떨까. 하루에 한 번 홍삼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모두가 원하는 건강한 삶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최고의 건강지킴이 홍삼은 정관장 전국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판매가격은 화애락본 13만원(30포·1포 70ml), 홍천옹 18만원(30포·1포 70ml), 홍백작 18만원(30포·1포 40ml)이다. 문의 1588-2304 / [www.kgc.or.kr](http://www.kgc.or.kr)

한 제품이 정관장 '홍천옹'이다. 피로 해소와 활력증진을 위해 6년근 홍삼을 주성분으로 상황버섯, 흑마늘추출물, 협개나무열매추출물, 쌀겨추출물, 타우린 등을 보강해 기능성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주성분인 홍삼농축액에는 32종의 인삼 사포닌과 산성다당체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피로 해소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진,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또, 협개나무열매추출물은 간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며 쌀겨추출물은 지구력과 근력을 향상한다. 여기에 시클로렉스트린도 첨가해 쓴맛을 개선했다.

### 장년층의 체력과 기억력 개선

KGC인삼공사는 60세 이상 시니어들을 위해 건강관리에 필요한 유효성분과 홍삼을 가미한 '홍백작'을 선보이고 있다. 6년근 홍삼농축액과 당귀, 산수유 등 고품질 식물성 소재와 녹용추출물 등을 이상적으로 배합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도록 개발됐다. 당귀는 빈혈 개선, 보혈, 강장, 이뇨작용에 효과적이고, 산수유농축액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녹용추출물은 신진대사 촉진 기능이 있다. 특히 정관장 '홍백작'은 소화기능이 떨어지는 60대 이상을 위해 소화·흡수가 용이하도록 부드럽게 만들어, 평소 소화기능이 약해 소화가 잘 안되거나 쓴맛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이다.

# TRAVEL



## 천상의 섬 모리셔스 그리고 르 생제랑

〈허클베리 펈의 모험〉으로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말했다. “신은 모리셔스를 만든 후 천국을 만들었다.”

천국을 닮은 인도양의 아름다운 섬 모리셔스. 그리고 그곳에 자리한 아주 특별한 리조트 원앤온리 르 생제랑.

마다가스카르에서 동쪽으로 약 800km, 인도에서 남서쪽으로 약 40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모리셔스. 드넓은 백사장과 산호빛 바다, 푸르게 넘실대는 수천 그루의 야자수. 흑자는 이곳을 ‘아프리카의 진주’라 부른다. 그만큼 신비로운 매력을 지닌 섬. 르 생제랑은 바로 이 섬의 가장 특별한 리조트로 알려져 있다. 포트루이스 국제공항에서 차로 50분을 달리면 르 생제랑을 만날 수 있다. 해변을 따라 옹기종기 모여 있는 일반 리조트들과 달리 이곳은 하나의 반도를 이를 만큼 넓은 규모를 자랑한다. 세인트 가든(Saint Geran)이라 표기된 거대한 성의 철문을 지나면 그 비밀스런 정체가 드러난다. 식민지 시대의 클래식한 스타일로 장식된 외관은 한눈에 중후한 멋을 뽐내고, 아름다운 해변을 향해 있는 162개의 객실은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전용 테라스로 향하는 문을 열면 언제든 바다와 만날 수 있다.

르 생제랑은 스포츠의 천국이기도 하다. 골프광이라면 골프계의 살아있는 전설 게리 플레이어가 디자인한 코스에서 특별한 라운딩을 즐기는 행운을 얻을 수 있다. 골프 외에도 승마, 테니스 등

품은 라군(lagoon)에서 즐기는 해양스포츠. 수상스키, 윈드서핑, 웨이크보드, 카이트보드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만끽할 수 있다. 초보자와 숙련자 모두를 위한 코스를 제공한다.

르 생제랑의 또 다른 자랑은 음식이다. 인도양이 내려다보이는 레스토랑에서 현대식 인도 요리와 다양한 세계 요리를 맛볼 수 있다. 특히 각종 생선과 가재, 새우 등 신선한 해산물 그릴은 모리셔스 최고 수준으로 정평이 나 있다. 웨딩의 천국 모리셔스에서는 스파도 놓칠 수 없다. 열대 정원으로 꾸민 평온한 사원에서의 인도식 스파는 도시에서 지친 심신에 진정한 휴식을 제공할 것이다.

르 생제랑을 방문한 여러 유명 인사 가운데 배우 존 트래볼타는 특히 모리셔스에 대한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이를 밖에 머무르지 못한 아쉬움을 공공연히 토로했다는 후문. 모리셔스에서는 외국 국적기에 대해 기항 기간을 단 이틀로 한정해놓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는 머지않아 또다시 가족과 함께 모리셔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의 02-757-7337 / www.thehoneymoon.co.kr



### INTERVIEW

원앤온리 르 생제랑 총지배인 찰스 드 포컬트



#### Q 모리셔스의 가장 큰 매력은?

▲ 모리셔스는 아직 발리나 몰디브보다 낯선 곳이다. 익히 알려진 곳들은 이제 너무 많은 인파로 북적인다. 사람과 자동차로

발 디딜 틈이 없다. 한국 관광객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한국어를 듣게 된다. 하지만 모리셔스는 다르다. 진정한 여유를 누릴 수 있다. 또한 모리셔스는 발견할 게 아직 많은 곳이다. 제주보다 조금 큰 이 섬엔 다양한 색깔이 공존한다. 모리셔스에 도착하면 우선 감탄부터 나에게 될 것이다. 풍광 자체가 다른 곳과 비교를 불러한다.

Q 르 생제랑은 모리셔스의 매력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나?

▲ 르 생제랑은 바로 그 자체로 이뤄진 리조트다. 바다로 둘러싸인 삼면이 모조리 리조트란 애기다. 품격 있는 다이닝, 스파는 물론이고 테니스, 골프, 승마, 수상스키, 보팅 등 각종 스포츠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추가 요금은 전혀 없다. 원기를 할 때마다 지갑을 꺼내야 하는 어느 리조트와는 다르다. 때문에 그만큼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

Q 40~50대 중·장년층에겐 어떤가?

▲ 리조트 전체 시설이 시니어 맞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건물의 층수가 1~2층으로 이루어져 동선 자체가 편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르 생제랑에선 완벽한 휴식이 가능하다.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 장담하건대, 푸른 바다가 펼쳐진 해변에 누워 50페이지 이상 책을 읽는 동안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문의 02-757-7337 / www.thehoneymoon.co.kr

### MINI INTERVIEW

리암 니슨

Q. 브라이언을 연기하며 힘들었던 점은?

A. 가족이 납치를 당한 상황을 연기한다는 것이 감정적으로 쉽지 않았다. 나 역시 개인적으로 두 이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Q. 〈테이큰2〉의 액션은 전편에 비해 다소 부드러워졌다.

맞다. 브라이언은 과거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중이다. 딸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여러 폭력적인 상황에도 많이 지쳐 있다. 이 같은 내적 갈등이 그 이유라고 본다.

Q. 〈테이큰〉 시리즈가 당신에게 가져온 변화는?

A. 나는 이 영화를 통해 할리우드에서 액션배우로 새롭게 자립매김했다. 덕분에 최근엔 액션영화 대본을 많이 받는다.

Q. 당신도 이제 예순이다. 액션배우로서의 활동이 부담스럽진 않은가?

A. 평소 체력관리에 무척 신경 쓰고 있다. 건강도 매우 좋은 상태다. 언제까지 액션배우로 활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내 건강이 말해줄 것이다.

Q. 어릴 적 복싱을 했다고 들었다.

A. 9~17살까지 아마추어 복싱 활동을 했다. 그때의 경험에 액션신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기간에 규칙적으로 체육관에 가서 훈련을 한 경험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체력이 유지된 것 같다. 영화에 등장하는 액션은 전직 특수 요원 출신의 코디네이터가 직접 짜서 키운 것이다. 동양무술이나 격투가 조합돼 있다. (...) 체력 소모가 큰 작품을 끝냈다는 데 큰 쾌감을 느낀다.

Q. 〈테이큰〉 시리즈를 비롯한 많은 작품을 쉽 없이 해온 비결이 궁금하다.

A. 특별한 비결은 없다. 여러 배역을 연기할 수 있었던 걸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나는 일을 무척 좋아한다. 여러 스태프와 촬영장에서 어울리는 게 참 즐겁다.

# Books



### 〈퍼스널 브랜드로 승부하라〉

스티브 카츠, 빌 게이츠, 웨恩 버핏...

이들은 모두 확실한 개인 브랜드를

자신 인물들이다. 개인 브랜드는 기업

CEO 같은 특별한 이들에게만 필요한

걸까. 그렇지 않다. 나이나 성별을

떠나 성공을 원하는 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브랜드를 지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피력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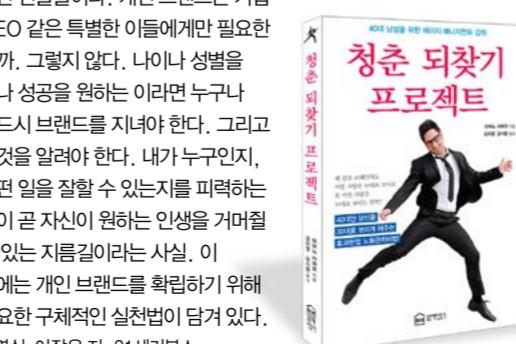
것이 곧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거 mơ될

수 있는지를 길들이는 사실. 이

책에는 개인 브랜드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법이 담겨 있다.

조연심·이창우 저, 21세기북스.



### 〈청춘 되찾기 프로젝트〉

40대 중반의 남성이라면 간기기 증상을

겪기 마련이다. 이 책은 40대 남성이

간기기 증상을 극복하고 젊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복부비만, 탈모,

소화불량, 관대증, 우울증 등 노화와

함께 두드러지는 각종 증상에 대한

해결책이 담겨 있다.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다. 내장이 봇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기운 맥주 대신 워스나 청종 마시기,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수리 마사지하기

등으로 사람도 쉽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이다.

허비노 사와코 저, 좋은책만들기.



### 〈내겐 너무 쉬운 사진〉

사랑하는 이의 얼굴이나 여행지의

멋진 풍광을 보다 특별하게 남길 수

있는 방법. 카메라 조작에 서툴더라도,

최신식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괜찮다. 베�티랑 사진기자인 저자는

간단하지만 결정적인 노하우를

전수한다. 얼굴을 찍을 땐 눈빛에만

집중하기, 아경은 해가 진 후 30분 안에

찍기, 카페에선 창가 자리 고수하기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한 방법들이

그것이다. 아울러 사진을 찍을 때 정말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닌 마음이라는

시작점까지 함께 담았다.

유창우 저, 워즈덤스터일.

# CULTURE

## Gallery



### 빛과 어둠 사이

#### 스티브 맥커리 사진전

1985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표지를 장식한 사진 '아프간 소녀'를 기억하는지? 남루한 누더기를 걸친 채 푸른 눈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난민 소녀를 통해 전쟁의 참상을 강렬히 드러낸 그가 바로 세계적인 포토저널리스트 스티브 맥커리다.

지구촌 곳곳의 분쟁지역에서 탄생한 그의 사진은

인간적 감성과 예술성을 두루 겸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테크닉이나 인위적 장식성

대신 빛과 어둠만으로 빛어낸 작품이기에 사진의

메시지는 더욱 진하게 각인된다.

맥커리의 전시는 지난 2010년에 이어 국내에서는

두 번째다. 그동안 한 번도 노출되지 않은 미공개

작품 100점이 이번 전시를 통해 공개된다. 2년

전 열린 첫 전시가 보도사진 중심이라 이번

전시는 순간포착으로 완성된 예술사진 중심이다.

그의 인생이 녹아 있는 극적인 작품을 통해

아티스트로서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다.

10월 21일까지 예술의전당 V갤러리.

문의 02-511-2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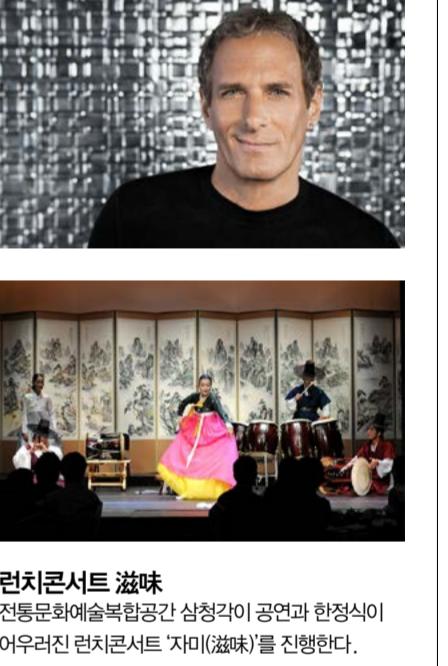
### 마이클 볼튼 내한 공연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마이클 볼튼이 한국을 찾는다. 백인 감각의 소울, 즉 '블루 아이드 소울(Blue Eyed Soul)'의 대표주자인 볼튼의 여러 히트곡을 감미로운 라이브로 만날 수 있다.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 볼튼은 'When a man loves a woman' 등 자신의 대표곡은 물론이고 국내외 클래식 팬들에게 널리 알려진 오페라 〈투란도트〉의 'Nessun Dorma' 등을 선보이며 장르를 넘나드는 색다른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볼튼은 1975년 데뷔 이래 17장의 스튜디오 앨범과 35장의 싱글 앨범을 발매, 총 50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그레이미어워드, 아메리칸뮤직어워드 등을 훨씬 넘어서 세계적인 팝스타의 반열에 올랐으며 예술가가 된 지금까지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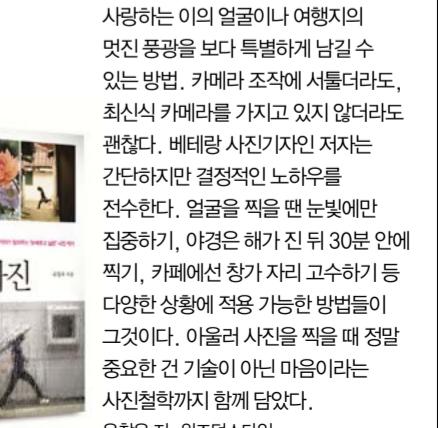
10월 17일 오후 8시 칼심실내체육관.

문의 02-407-2589

## Movie



## Stage



멋지게 나이드는 이들을 위한 섹션 매거진 [senior.chosun.com](http://senior.chosun.com)

## 대한민국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 2012 서울국제시니어엑스포

# Seoul International Senior Expo



# 시니어조선과 시니어파트너즈가 함께 준비한 2012 서울국제시니어엑스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서울국제시니어엑스포는 시니어 고객 대상의 비즈니스 기업뿐만 아니라 시니어 산업을 대표하는 기관 책임자와 국내 주요 기업이 함께합니다. 또한, 3700백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은퇴자 커뮤니티인 미국 은퇴자협회(AARP)가 글로벌 파트너사로 참여합니다. 미국 시니어케어 산업을 대표하고 전 세계 17 개국에 진출한 흠큰스테드시니어케어(HISCO)와 독일 노령 기술협회(GGT), 일본 시니어마케팅시스템(SMS) 등 시니어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도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번 엑스포 기간 동안 대한민국 시니어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그려보자 합니다. 이를 위해 8가지 관점에서 엑스포를 준비했습니다. 경제와 건강은 물론 주거와 생활, 농지, 직업, 인식,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니어의 관심사를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각 주제를 대표하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이번 엑스포에 참가해 방문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참가하는 '서울국제 시니어 전시회'와 국내외 시니어 산업 전문가들이 이 시니어와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글로벌 시니어비즈니스 컨퍼런스',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고객 세미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습니다. 시니어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B2B 세미나도 진행합니다.

영국 사회철학자 피터 라스렌은 직장에서 물리나 건강하게 생활하는 20~30년간을 제3기 인생(the third age)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열심히 일한 제2기 인생(the second age) 이후 맞게 되는 이 시기는 다른 직업에 도전하거나 취미활동·자원봉사처럼 가치 있는 활동을 통해 자아 성취감과 정체성을 찾는 새로운 삶의 한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 2012 서울국제시니어엑스포는 활동적인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많은 정보와 다양한 강연을 통해 시니어 라이프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은퇴 이후 멋진 삶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시니어조선〉 발행인 양근만 〈시니어파트너즈〉 대표 박은경

## EVENT IN SENIOR EXPO

### 참관하는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2012 서울국제시니어엑스포에  
입장하는 모든 분들께 한국점에서  
제공하는 안티노네랄 비누와  
유한킴벌리 요실금 팬티, 패드를  
드립니다.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얻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선물 재고  
소진 시 사전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사진 등록으로 무료 관람하고 선물을 드립니다

2012 서울국제시니어엑스포에  
입장하는 모든 분들께 한국점에서  
제공하는 안티노네랄 비누와  
유한킴벌리 요실금 팬티, 패드를  
드립니다.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얻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선물 재고  
소진 시 사전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선착순 입장객 100명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엑스포 기간 중 코엑스홀 B 전시장  
입구에서 선착순으로 입장하시는  
참관객 100분에게 안티노네랄 크림  
20ml(4일)과 아비노 선 يتم(5일)을  
드립니다. (전시장 입장은 10시부터  
가능합니다.)

### 엑스포 행사장 곳곳에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보세요

입구에서 나눠드린 보물 지도를 따라 행사장을 둘러보면  
다양한 경품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골프 드라이버(1명, 250만 원), 최고급 자전거(4명),  
CGV 영화관 골드클래스 입장권(1인2매씩 10명) 등  
행운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첨가업체 부스별 이벤트를 꼼꼼히 행기세요

서울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명신 교수님의  
유전진단 무료상담(병원 방문 상당 시 3만원  
이상), 체지방 분석 등의 간단한 측정을 비롯해  
유한킴벌리, CGV, 한국점, 스타코리아,  
서울노인영화제, 프렐리테일, 복촌수의, WPGA,  
니플렉스, CJ제일제당 등 각 부스별 다양한  
서비스와 할인 행사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고령화 사회, 위기에서 희망을 발견하다

로저 바움가르트 (미국 Home Instead Senior Care CEO)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많은 이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과연 고령화라는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인류의 위기인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미래는 더 큰 희망의 시대가 될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노화 문제에 대한 의제 회의에서는 고령화 시대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 논의된 바 있다.

첫째, 고령 인구가 가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것. 둘째, 평생학습 기회를 개발하는 데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고령인구의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는 대응책을 마련할 것. 셋째, 머지 않아 4억5000명이 이를 전 세계 고령인구가 지속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변화를 만들 것.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해법을 구한다면 최선의 대응 방식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수명의 연장은 인류가 달성한 최고의 위업 중 하나이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필연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야 할 것이다.



###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와 회원의 가치를 통해

미국 은퇴자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에드워드 존스 (미국 AARP International Affairs Senior Advisor)

미국은퇴자협회(이하 AARP)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건설을 위해 1958년 미국에서 설립된 은퇴자 단체로, 현재 등록된 회원 수가 약 3700 백만을 자랑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은퇴자 커뮤니티다. 매년 1조5000억 이상의 사업자금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는 AARP는 거대한 기업을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AARP의 핵심 가치는 '자원봉사정신(Volunteerism)'으로 미국 전역의 68개 사무실에 등록된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통해 고령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또한, AARP는 전체 사업자금의 약 50% 이상을 기부금 모집을 통해 확보하고 있을 만큼 회원 간의 강력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회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월간 소식지는 유료구독자가 약 2400백만 명에 달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잡지로도 알려져 있다.

AARP의 주요 활동범위는 미국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 및 의료보장제도의 보호, 종사 층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지원,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사회계몽활동 및 가정과 커뮤니티 내에서의 관계 강화를 위한 캠페인 전개 등이다. 또한 AARP는 WHO와 연대하여 고령자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킹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는 이미 뉴욕시를 포함한 8개주가 참여하였고 향후 서울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도시들과도 연대도 계획하고 있다. AARP는 이번 서울국제시니어엑스포 컨퍼런스를 통해 AARP가 어떤 방식으로 미국의 은퇴자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는지에 관해 국내의 산업 및 정부 관계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 고령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보인프라 시장

모루지 슈이 일본/SMS CEO

SMS는 일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니어 산업의 대표 기업이다. 간병, 의료 분야에서 22개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SMS는 설립 4년 10개월 만에 도쿄 마사즈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2011년 12월에는 도쿄증권거래소시장 제1부 시장으로 시장 변경을 했다. 현재 7개의 자회사와 3개의 관련 회사를 거느린 그룹사로 성장, 지난해에는 한국 법인인 SMS Korea를 설립한 후, 20만 명의 간호사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 간호사 커뮤니티 사이트 'Nurscape'를 인수하면서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

일본은 물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많은 나라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니어가 소비의 주역이 되고 향후에는 여러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가 시니어를 축으로 전개될 것이다. SMS는 이번 서울국제시니어엑스포 컨퍼런스를 통해 SMS의 사업 실적과 한국에서의 사업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간병, 의료, 액티브 시니어의 3개 분야는 고령사회에서 기업의 역할이 요구되어지는 분야이며, 그 중에서도 의료분야는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간병 분야 또한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만큼 해당 시장이 성장할 것이 자명하다. 간병, 의료업계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갈수록 확대될 것이며, 그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IT기술, 정보인프라 서비스가 사용될 것이다. 향후 간병, 의료분야의 소비자가 늘 것이며, 그에 따라 다양한 업체의 참여가 확대되리라 예상된다. 즉, 간병, 의료사업을 전개하는 범위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메이커나 자동차·메이커 등도 시장에 뛰어들어 간병, 의료관련의 상품을 판매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시니어라이프를 준비하는 당신이 바라던 선택의 기준

## 2013 대한민국시니어브랜드대상

2012년 12월, 대한민국 대표 시니어 브랜드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대한민국시니어브랜드대상(Korea Senior Brand Index)이란

시니어조선이 주최·주관하는 브랜드 인증·시상 행사로, 시니어 상품을

품질, 서비스, 안전, 이미지 등 4대 관점 5개 영역에서 소비자와 전문가가 평가한 결과를 지수화하여

상품에 대한 시니어 및 시니어준비세대 소비자들의 브랜드 가치 척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시니어브랜드대상은

대한민국 산업에 시니어 전문/특화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시함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는 시니어·시니어준비 상품군 선택의 기준이,

기업에게는 타사와의 비교우위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브랜드 표준이 될 것입니다.

1위 인증기업 간담회 일정 안내

일시 : 2012년 10월 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장소 : 삼성동 Coex Hall B, 2012 서울국제시니어엑스포 세미나실

총 9개 산업 119개 부문의 1위 인증기업리스트는 [www.senioraward.co.kr](http://www.senioraward.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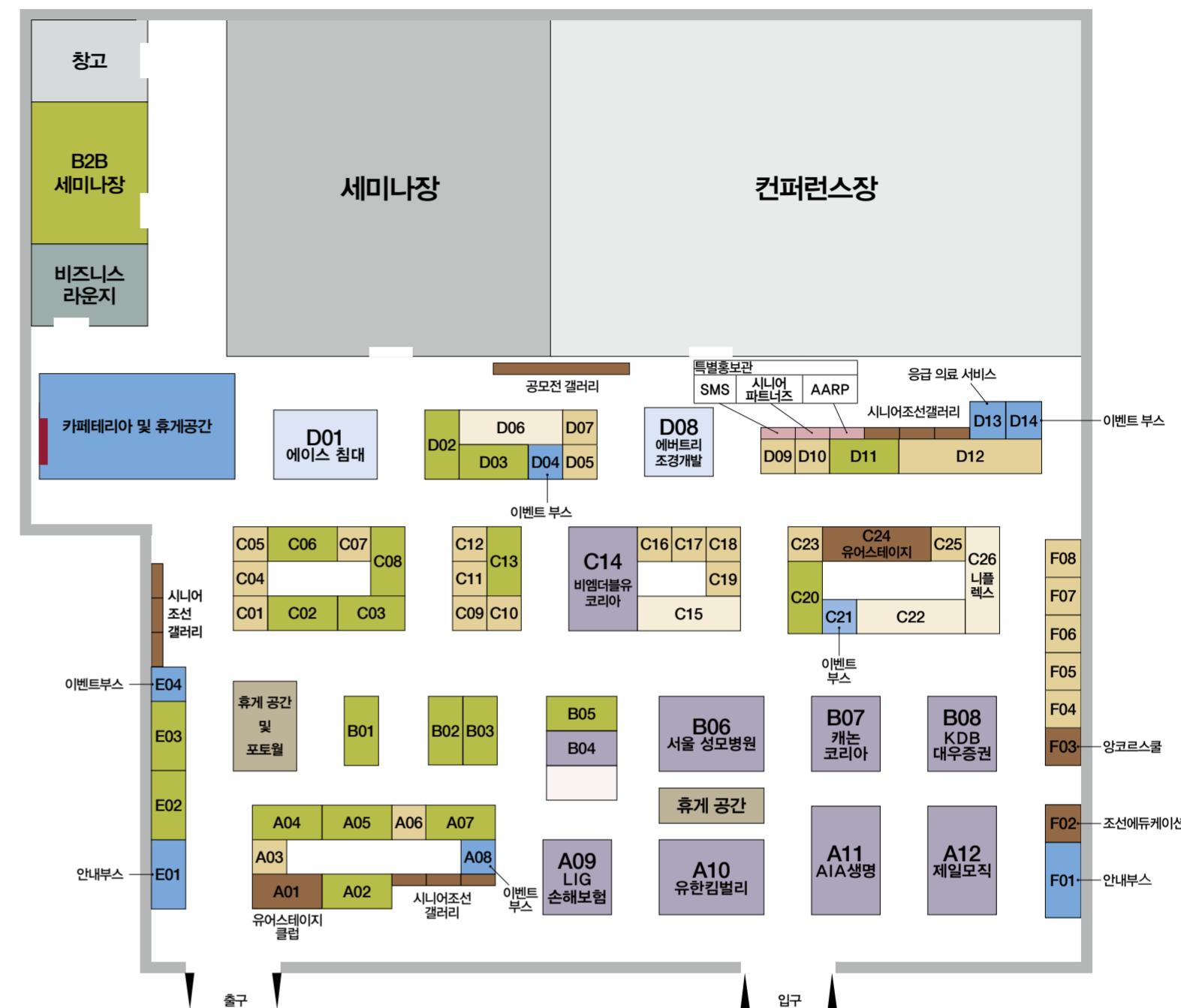
기타 자세한 문의는 대한민국시니어브랜드대상 운영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대한민국시니어브랜드대상 운영사무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35 조선일보사 구관 3층 T.02-724-7865 E.senior@chosun.com

## 행사장 부스 안내도

2012 10.4~5 Coex Hall B



NO	업체명	품목	부스번호	세미나	이벤트	NO	업체명	품목	부스번호	세미나	이벤트
1	(한)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평생간강증진센터	병원	B06	●	●	33	유미타스	고령친화용품	C07		
2	강남대학교	교육	F06			34	유한킴벌리	고령친화용품	A10		●
3	강남시니어플라자	생활지원서비스	A03			35	이그린오션(주)	기관	D09		
4	간접디아제스트	잡지	B02			36	이노아이	고령친화용품	C05		
5	교보생명	금융	D12			37	이트레이드증권	금융	D11	●	
6	농업회사법인(유)김수원	주거정보	D02	●		38	(주)인스밸리	금융	A06		
7	(주)나플렉스	고령친화용품	C26	●		39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협회	D06		
8	대한보청기주식회사	고령친화용품	C06			40	제5회 서울노인영화제	문화	E03	●	
9	동아본가 힐링타운	건강	D03			41	제일모직	패션	A12	●	
10	드림에어베디칼	고령친화용품	C02	●		42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생활용품	B07	●	
11	비아크앤드	레저	C16	●		43	(주)클루리아프제약	노인생활용품	C12		
12	복수주의	생활	C11	●		44	(주)푸드코아	식품	C22		
13	비엘더블유코리아(주)	자동차	C14			45	(주)프렐리테일	생활용품	C09		
14	(복)빛과소금 유당마을	실버타운	D07			46	한국경영연구원	기관	F08		
15	(주)사랑마루	실버타운	C19			47	한국립	고령친화용품	A04	●	
16	사회의향기문화원	문화적	A02			48	한국리더십센터	기관	F07		
17	사회적기업 이강	주거정보	C17			49	한국에스엠에스	정보	D10		
18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생활지원서비스	E02			50	한국존슨앤드존슨미디칼(주)	고령친화용품	B04	●	
19	서울대학교 제 3기 인생대학	교육	F04			51	한국사이버대학교 시니어비지니스학과	교육	F05		
20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생활지원서비스	E02			52	(주)풀인스티드코리아	시니어케어서비스	C15	●	
21	순창천년초영농조합법인	건강보조식품	C25	●		53	(주)헬스리아	병원	B03		
22	(주)스티코리아	고령친화용품	C04	●		54	화이트스타일치과	병원	C18		
23	시니어 프렌즈	시니어케어서비스	C08			55	AARP(미국은퇴자협회)	기관	–		
24	엔텀슨국제아카데미	교육	B05			56	AIA생명	금융	A11		
25	(주)에버트리조경개발	생활	D08			57	CJ CGV	문화	–	●	
26	에이스 침대	가구	D01			58	CJ제일제당주식회사	식품	C20	●	
27	얼서클	헬스케어용품	–			59	F1 코리아	레저	–		
28	모트에베뉴	레저	C10			60	KB국민은행	금융	A05		
29	(주)월드피지에이	레저	C13	●		61	KDB대우증권	금융	B08		
30	월디	고령친화용품	C03			62	KDB대우증권	금융	A07		
31	(주)위키넷	정보	D05			63	LIG손해보험주식회사	금융	A09		
32	우마스	패션	B01								

● 세미나 스마트시니어 고객 세미나 진행 ● 이벤트 특가판매 또는 개별 이벤트 진행



# 서울국제시니어엑스포 참가업체

(업체 순서 가나다순)



## 강남시니어플라자

대표 박용대  
주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32  
강남시니어플라자(682-8)  
전화 02-554-5479  
팩스 02-2051-9020  
이메일 hwajinyi@naver.com  
www.seniorplaza.or.kr  
강남시니어플라자는 강남구청이 설립하고, 사회복지법인 자랑재단이 운영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이다. 60세 이상의 강남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건강 체크 및 운동, 음악, 미술, 문학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안락한 카페에 모여 담소를 나누거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 월별 식사를 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 인기만점.



## 건강다이제스트

대표 이정숙  
주소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5-3  
대신빌딩 3층  
전화 02-702-6333  
팩스 02-702-6334  
이메일 diegest@chol.com  
www.kunkang.co.kr  
건강다이제스트는 29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건강 매거진이다. 천하를 얻고자 건강을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진리를 고집하고 있는 건강다이제스트가 추구하는 깊은 단 하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 알바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건강상식, 의료계 현장에서 도입되는 최신의료법 등을 소개하며 건강길잡이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농업회사법인(유)감수원

대표 노승근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09  
센텀MAKUS빌딩 1301호  
전화 051-805-8803  
팩스 051-714-4499  
이메일 noh\_jt@gamsuwon.com  
www.gamsuwon.com  
농업회사법인(유)감수원은 경남 산청군 단성면 병목리 408번지 일원에 도시 생활 은퇴지의 성공적인 귀촌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자연건강 테마마을 산청 긍정전원마을을 조성 중이다. 약 8만평 부지에 1단지 전원마을 79세대, 2단지 고급 전원주택지 37세대, 3단지 중소형 전원주택지 35여 세대 및 베시티재배 귀농전원마을 40여 세대의 대단지 전원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동의본가 힐링타운

대표 박상미  
주소 경남 산청군 금서면 특리 87  
전화 055-973-9565  
동의본가는 신개념 한방의료시설이다. 전통 한옥에서 개인별 맞춤형 약선 음식과 건강식품을 섭취, 한방진료와 병상, 기공 등 한방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한우에서 한의학 치료를 받으며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데 제격.



## 교보생명

대표 신창재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전화 1588-1001  
www.kyobo.co.kr  
교보생명 노블리에는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평생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다. 이곳에서는 고객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세무, 부동산, 법률 뿐만 아니라 은퇴설계 및 자녀 품, 상속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토큰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1대 1 맞춤 컨설팅을 통해 보험은 물론 은행·증권사 등의 금융상품 가운데 고객에 맞는 최적 상품을 골라준다는 점에서 투자상품이 중심인 은행이나 증권사 PB와 차별화 된다.



## 주니플렉스

대표 박종선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본관 4층  
평생건강증진센터  
전화 1588-8668  
팩스 02-2258-2142  
이메일 healthpromotion@catholic.ac.kr  
http://www.cmcseoul.or.kr/heathcare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는 최고 수준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통하여 평생건강과 미래의 의학을 구현하는 건강증진센터다. 고객 맞춤의 기준 단위 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평생 건강 관리를 실현해나가고 있으며, 노인을 인정받아 2010년 한국소비자원 강간검진 부문 1위, 2011년 글로벌의료서비스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교수급 전문의 27명을 포함한 130여명의 의료인력과 전문가들이 1200명이라는 넓은 공간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찾아온 고객들에게 정확한 검사서비스와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2만 5000여 명의 고객들이 찾는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는 유전증단 등 미래의과와 꾸준한 연구를 바탕으로 프리미엄 건강검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고 있다. 또한 2010년에는 병원 전체가 JCI 인증을 받았으며, 연간 1200여 명(2011년 기준)의 외국인 건강 검진 고객이 방문하고 있는 글로벌 건강 검진센터다.



## 대한보청기주식회사

대표 황성애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4-5번지  
전화 02-786-9037  
팩스 02-786-9039  
이메일 ameco@bikeand.kr  
www.bikeand.kr  
대한보청기는 1977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보청기 전문 기업이다. 보청기에 대한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성능은 물론이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제작되어 착용감이 뛰어나고 평생 AGS가 보장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매우 높다. 고객을 중심으로 인기의 행복과 인류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바이크앤드는 독특한 디자인의 고급 자전거를 수입 판매하는 업체다. 고가의 전문가용 MTB와 선수용 의류, 헬멧 일색으로 외국된 국내 자전거 문화를 바로잡고자 한다. 바이크앤드의 대인보청기는 1977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보청기 전문 기업이다. 보청기에 대한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성능은 물론이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제작되어 착용감이 뛰어나고 평생 AGS가 보장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매우 높다. 고객을 중심으로 인기의 행복과 인류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대표 김상우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4-5번지  
전화 02-2247-0020  
팩스 02-2248-3397  
이메일 daehan@maxo.co.kr  
www.maxo.co.kr  
대한보청기는 1977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보청기 전문 기업이다. 보청기에 대한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성능은 물론이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제작되어 착용감이 뛰어나고 평생 AGS가 보장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매우 높다. 고객을 중심으로 인기의 행복과 인류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대표 김상우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SK 허브프리자 B동 104호  
전화 02-3210-0237  
팩스 02-3210-0239  
이메일 brotherion@hanmail.net  
www.brotherion.co.kr  
대한보청기는 1977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보청기 전문 기업이다. 보청기에 대한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성능은 물론이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제작되어 착용감이 뛰어나고 평생 AGS가 보장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매우 높다. 고객을 중심으로 인기의 행복과 인류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대표 김상우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SK 허브프리자 B동 104호  
전화 02-3210-0237  
팩스 02-3210-0239  
이메일 brotherion@hanmail.net  
www.brotherion.co.kr  
대한보청기는 1977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보청기 전문 기업이다. 보청기에 대한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성능은 물론이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제작되어 착용감이 뛰어나고 평생 AGS가 보장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매우 높다. 고객을 중심으로 인기의 행복과 인류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대표 김상우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SK 허브프리자 B동 104호  
전화 02-3210-0237  
팩스 02-3210-0239  
이메일 brotherion@hanmail.net  
www.brotherion.co.kr  
대한보청기는 1977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보청기 전문 기업이다. 보청기에 대한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성능은 물론이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제작되어 착용감이 뛰어나고 평생 AGS가 보장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매우 높다. 고객을 중심으로 인기의 행복과 인류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대표 김상우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SK 허브프리자 B동 104호  
전화 02-3210-0237  
팩스 02-3210-0239  
이메일 brotherion@hanmail.net  
www.brotherion.co.kr  
대한보청기는 1977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보청기 전문 기업이다. 보청기에 대한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성능은 물론이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제작되어 착용감이 뛰어나고 평생 AGS가 보장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매우 높다. 고객을 중심으로 인기의 행복과 인류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대표 김상우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SK 허브프리자 B동 104호  
전화 02-3210-0237  
팩스 02-3210-0239  
이메일 brotherion@hanmail.net  
www.brotherion.co.kr  
대한보청기는 1977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보청기 전문 기업이다. 보청기에 대한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성능은 물론이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제작되어 착용감이 뛰어나고 평생 AGS가 보장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매우 높다. 고객을 중심으로 인기의 행복과 인류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대표 김상우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SK 허브프리자 B동 104호  
전화 02-3210-0237  
팩스 02-3210-0239  
이메일 brotherion@hanmail.net  
www.brotherion.co.kr  
대한보청기는 1977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보청기 전문 기업이다. 보청기에 대한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성능은 물론이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제작되어 착용감이 뛰어나고 평생 AGS가 보장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매우 높다. 고객을 중심으로 인기의 행복과 인류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대표 김상우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SK 허브프리자 B동 104호  
전화 02-3210-0237  
팩스 02-3210-0239  
이메일 brotherion@hanmail.net  
www.brotherion.co.kr  
대한보청기는 1977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보청기 전문 기업이다. 보청기에 대한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성능은 물론이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제작되어 착용감이 뛰어나고 평생 AGS가 보장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매우 높다. 고객을 중심으로 인기의 행복과 인류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대표 김상우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SK 허브프리자 B동 104호  
전화 02-3210-0237  
팩스 02-3210-0239  
이메일 brotherion@hanmail.net  
www.brotherion.co.kr  
대한보청기는 1977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보청기 전문 기업이다. 보청기에 대한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성능은 물론이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제작되어 착용감이 뛰어나고 평생 AGS가 보장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매우 높다. 고객을 중심으로 인기의 행복과 인류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대표 김상우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SK 허브프리자 B동 104호  
전화 02-3210-0237  
팩스 02-3210-0239  
이메일 brotherion@hanmail.net  
www.brotherion.co.kr  
대한보청기는 1977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보청기 전문 기업이다. 보청기에 대한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성능은 물론이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제작되어 착용감이 뛰어나고 평생 AGS가 보장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매우 높다. 고객을 중심으로 인기의 행복과 인류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대표 김상우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SK 허브프리자 B동 104호  
전화 02-3210-0237  
팩스 02-3210-0239  
이메일 brotherion@hanmail.net  
www.brotherion.co.kr  
대한보청기는 1977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보청기 전문 기업이다. 보청기에 대한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성능은 물론이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제작되어 착용감이 뛰어나고 평생 AGS가 보장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매우 높다. 고객을 중심으로 인기의 행복과 인류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대표 김상우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SK 허브프리자 B동 104호  
전화 02-3210-0237  
팩스 02-3210-0239  
이메일 brotherion@hanmail.net  
www.brotherion.co.kr  
대한보청기는 1977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보청기 전문 기업이다. 보청기에 대한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성능은 물론이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제작되어 착용감이 뛰어나고 평생 AGS가 보장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매우 높다. 고객을 중심으로 인기의 행복과 인류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대표 김상우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SK 허브프리자 B동 104호  
전화 02-3210-0237  
팩스 02-3210-0239  
이메일 brotherion@hanmail.net  
www.brotherion.co.kr  
대한보청기는 1977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보청기 전문 기업이다. 보청기에 대한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성능은 물론이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제작되어 착용감이 뛰어나고 평생 AGS가 보장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매우 높다. 고객을 중심으로 인기의 행복과 인류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대표 김상우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SK 허브프리자 B동 104호  
전화 02-3210-0237  
팩스 02-3210-0239  
이메일 brotherion@hanmail.net  
www.brotherion.co.kr  
대한보청기는 1977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보청기 전문 기업이다. 보청기에 대한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성능은 물론이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제작되어 착용감이 뛰어나고 평생 AGS가 보장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매우 높다. 고객을 중심으로 인기의 행복과 인류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대표 김상우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SK 허브프리자 B동 104호  
전화 02-3210-0237  
팩스 02-3210-0239  
이메일 brotherion@hanmail.net  
www.brotherion.co.kr  
대한보청기는 1977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보청기 전문 기업이다. 보청기에 대한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성능은 물론이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제작되어 착용감이 뛰어나고 평생 AGS가 보장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매우 높다. 고객을 중심으로 인기의 행복과 인류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대표 김상우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SK 허브프리자 B동 104호  
전화 02-3210-0237  
팩스 02-3210-0239  
이메일 brotherion@hanmail.net  
www.brotherion.co.kr  
대한보청기는 1977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보청기 전문 기업이다. 보청기에 대한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성능은 물론이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제작되어 착용감이 뛰어나고 평생 AGS가 보장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매우 높다. 고객을 중심으로 인기의 행복과 인류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대표 김상우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SK 허브프리자 B동 104호  
전화 02-3210-0237  
팩스 02-3210-0239  
이메일 brotherion@hanmail.net  
www.brotherion.co.kr  
대한보청기는 1977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보청기 전문 기업이다. 보청기에 대한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성능은 물론이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제작되어 착용감이 뛰어나고 평생 AGS가 보장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매우 높다. 고객을 중심으로 인기의 행복과 인류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대표 김상우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SK 허브프리자 B동 104호  
전화 02-3210-0237  
팩스 02-3210-0239  
이메일 brotherion@hanmail.net  
www.brotherion.co.kr  
대한보청기는 1977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보청기 전문 기업이다. 보청기에 대한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성능은 물론이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제작되어 착용감이 뛰어나고 평생 AGS가 보장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매우 높다. 고객을 중심으로 인기의 행복과 인류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대표 김상우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SK 허브프리자 B동 104호  
전화 02-3210-0237  
팩스 02-3210-0239  
이메일 brotherion@hanmail.net  
www.brotherion.co.kr  
대한보청기는 1977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보청기 전문 기업이다. 보청기에 대한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성능은 물론이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제작되어 착용감이 뛰어나고 평생 AGS가 보장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매우 높다. 고객을 중심으로 인기의 행복과 인류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대표 김상우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SK 허브프리자 B동 104호  
전화 02-3210-0237  
팩스 02



# 서울국제시니어엑스포 참가업체

(업체 순서 가나다순)



**E-Green-Ocean**

이그린오션(주)

대표 윤철현

주소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백화점 901호

전화 02-445-4654

팩스 02-445-4655

이메일 ivy0410@didsolu.com

이그린오션은 무궁무진한 글로벌 사회에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회사다. 특히 실업사업과 관련, 장기간 축적된 선진 유럽의 경험과 노하우를 시니어를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노아이**

대표 선우현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12-1

울산자산운용센터 516호

전화 052-288-5637

팩스 052-289-5638

이메일 hwsun@hanmail.net

www.inno-i.net

이노아이는 동전과 카메라를 이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원천기술을 제공하며 자동 판매 시스템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자동판매기, 자동발행기, 게임기, 암마의자 등의 음용 분야에 컨설팅과 제품 개발을 통하여 각종 제품을 양식화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단체다.



**월дин**

대표 최승용

주소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930-1

전화 02-6404-9153

팩스 02-6404-9154

이메일 stchoi@wordin.com

www.wordin.com

월дин은 반신욕기 제조업체다. 대표 제품은 물이 원적외선으로 즐길 수 있는 반신욕기, 의자는 45도까지 높힐 수 있으며 봉침 또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상판이 넓어 반신욕을 하면서 동시에 노트북 작업을 할 수 있다. 등받이 부분에는 두드림 방식의 암마 기능이 적용됐다. 미국 FCC 및 일본 전기기구 안전인증을 받은 등 안전성에서는 여러 차례 검증 받은 제품이다. 현재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등지에 수출된다.



**㈜위키넷**

대표 정장환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3-6

래베누보일링 4층

전화 02-562-5090

팩스 02-562-5041

이메일 mkt@linknow.kr

www.linknow.kr

링크나우는 학생이나 직장인은 물론이고 전문가, 헤드헌터, 기업인들을 위한 비즈니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다. 사용자는 자신의 프로필을 통해 개인 브랜드를 알리고 나아가 네트워크를 확장, 취업을 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구직자와 고용주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대방의 평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므로, 지원과 경험의 풍부한 경력자에게는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트레이드증권**

대표 남상현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2 KT 빌딩 17층

전화 02-3779-0100

팩스 02-784-6224

이메일 alphonus@etrade.co.kr

www.etrade.co.kr

12년 전 온라인증권사로 출발해 종합증권사로 성장한 이트레이드증권은 2008년 대주주 변경 이후 자산규모 6배, 영수수의 4배 성장 등으로 시세를 크게 확장했다. 또한 국내 33개 종합증권사 중에서 ROE(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익률) 2위를 기록하는 등 절적 성장에 있어서도 업계 상위 기업으로 꼽힌다. 최근 300억을 투자하여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주요 언론에서 개최되는 제5회 서울노인영화제는 만 60세 이상의 자유주제와 청년세대의 노인 주제 단편영화들이 한자리에서 상영되는 영화축제다. 개인공연과 개막식, 서울노인영화제 흥보대사 박해일 주연의 2012년 문재작(은교) 및 디제로운 단편영화들의 상영, 특별 프로그램과 부대행사, 영화제 시상식과 수상작 상영으로 이어지는 축제의 향연.

**(주)인스밸리**

대표 배병남

주소 서울시 강남구 신도림동 337번지 미래타워 13층 인스밸리

전화 080-566-0082

팩스 02-6911-0369

이메일 angel3606@insvalley.com

www.insvalley.com

인스밸리는 보험 마케팅 12년의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 그룹이다.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인스밸리에서는, 국내 10여 개 보험사의 100여 개 보험상품을 전시하고 실시, 국내 보험 비교견적, 비교서비스를 통해 국내의 유명 생활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상품 비교가 가능한 온라인 보험비교 포털이다.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대표 이수

주소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119-3

전화 031-242-0079(내선538번)

팩스 031-255-2453

이메일 ictya@hanmail.net

www.inno-i.net

이노아이는 동전과 카메라, 렌즈, 포토프린터, 디지털캠코더 등의 광학 이미징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특히 2009년 3월, 전시기 최초로 카논의 다양한 제품들을 전시, 판매할 뿐 아니라, 사진 교육과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인 '카논플렉스'를 오픈해 사진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주)클루라이프제약**

대표 임종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대학(녹지캠퍼스) 6층

전화 02-925-8822

http://clulife.com

클루라이프제약은 천연물 신약연구소와 함께 새로운 신약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의약품을 통하여 기능성 식품 및 토플렉스케어 분야에서의 업무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세계 무대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의학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5회 서울노인영화제**

대표 김상두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삼일로 467

전화 02-739-9501~3

팩스 02-739-9504

이메일 webmaster@seoulnoin.or.kr

http://sisff.tistory.com

2012년 10월 22~25일, 대한극장에서 개최되는 제5회 서울노인영화제는 만 60세 이상의 자유주제와 청년세대의 노인 주제 단편영화들이 한자리에서 상영되는 영화축제다. 개인공연과 개막식, 서울노인영화제 흥보대사 박해일 주연의 2012년 문재작(은교) 및 디제로운 단편영화들의 상영, 특별 프로그램과 부대행사, 영화제 시상식과 수상작 상영으로 이어지는 축제의 향연.

최근 300억을 투자하여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주요 언론에서 개최되는 제5회 서울노인영화제는 만 60세 이상의 자유주제와 청년세대의 노인 주제 단편영화들이 한자리에서 상영되는 영화축제다. 개인공연과 개막식, 서울노인영화제 흥보대사 박해일 주연의 2012년 문재작(은교) 및 디제로운 단편영화들의 상영, 특별 프로그램과 부대행사, 영화제 시상식과 수상작 상영으로 이어지는 축제의 향연.

최근 300억을 투자하여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주요 언론에서 개최되는 제5회 서울노인영화제는 만 60세 이상의 자유주제와 청년세대의 노인 주제 단편영화들이 한자리에서 상영되는 영화축제다. 개인공연과 개막식, 서울노인영화제 흥보대사 박해일 주연의 2012년 문재작(은교) 및 디제로운 단편영화들의 상영, 특별 프로그램과 부대행사, 영화제 시상식과 수상작 상영으로 이어지는 축제의 향연.

최근 300억을 투자하여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주요 언론에서 개최되는 제5회 서울노인영화제는 만 60세 이상의 자유주제와 청년세대의 노인 주제 단편영화들이 한자리에서 상영되는 영화축제다. 개인공연과 개막식, 서울노인영화제 흥보대사 박해일 주연의 2012년 문재작(은교) 및 디제로운 단편영화들의 상영, 특별 프로그램과 부대행사, 영화제 시상식과 수상작 상영으로 이어지는 축제의 향연.

최근 300억을 투자하여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주요 언론에서 개최되는 제5회 서울노인영화제는 만 60세 이상의 자유주제와 청년세대의 노인 주제 단편영화들이 한자리에서 상영되는 영화축제다. 개인공연과 개막식, 서울노인영화제 흥보대사 박해일 주연의 2012년 문재작(은교) 및 디제로운 단편영화들의 상영, 특별 프로그램과 부대행사, 영화제 시상식과 수상작 상영으로 이어지는 축제의 향연.

최근 300억을 투자하여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주요 언론에서 개최되는 제5회 서울노인영화제는 만 60세 이상의 자유주제와 청년세대의 노인 주제 단편영화들이 한자리에서 상영되는 영화축제다. 개인공연과 개막식, 서울노인영화제 흥보대사 박해일 주연의 2012년 문재작(은교) 및 디제로운 단편영화들의 상영, 특별 프로그램과 부대행사, 영화제 시상식과 수상작 상영으로 이어지는 축제의 향연.

최근 300억을 투자하여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주요 언론에서 개최되는 제5회 서울노인영화제는 만 60세 이상의 자유주제와 청년세대의 노인 주제 단편영화들이 한자리에서 상영되는 영화축제다. 개인공연과 개막식, 서울노인영화제 흥보대사 박해일 주연의 2012년 문재작(은교) 및 디제로운 단편영화들의 상영, 특별 프로그램과 부대행사, 영화제 시상식과 수상작 상영으로 이어지는 축제의 향연.

최근 300억을 투자하여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주요 언론에서 개최되는 제5회 서울노인영화제는 만 60세 이상의 자유주제와 청년세대의 노인 주제 단편영화들이 한자리에서 상영되는 영화축제다. 개인공연과 개막식, 서울노인영화제 흥보대사 박해일 주연의 2012년 문재작(은교) 및 디제로운 단편영화들의 상영, 특별 프로그램과 부대행사, 영화제 시상식과 수상작 상영으로 이어지는 축제의 향연.

최근 300억을 투자하여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주요 언론에서 개최되는 제5회 서울노인영화제는 만 60세 이상의 자유주제와 청년세대의 노인 주제 단편영화들이 한자리에서 상영되는 영화축제다. 개인공연과 개막식, 서울노인영화제 흥보대사 박해일 주연의 2012년 문재작(은교) 및 디제로운 단편영화들의 상영, 특별 프로그램과 부대행사, 영화제 시상식과 수상작 상영으로 이어지는 축제의 향연.

최근 300억을 투자하여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주요 언론에서 개최되는 제5회 서울노인영화제는 만 60세 이상의 자유주제와 청년세대의 노인 주제 단편영화들이 한자리에서 상영되는 영화축제다. 개인공연과 개막식, 서울노인영화제 흥보대사 박해일 주연의 2012년 문재작(은교) 및 디제로운 단편영화들의 상영, 특별 프로그램과 부대행사, 영화제 시상식과 수상작 상영으로 이어지는 축제의 향연.

최근 300억을 투자하여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주요 언론에서 개최되는 제5회 서울노인영화제는 만 60세 이상의 자유주제와 청년세대의 노인 주제 단편영화들이 한자리에서 상영되는 영화축제다. 개인공연과 개막식, 서울노인영화제 흥보대사 박해일 주연의 2012년 문재작(은교) 및 디제로운 단편영화들의 상영, 특별 프로그램과 부대행사, 영화제 시상식과 수상작 상영으로 이어지는 축제의 향연.

최근 300억을 투자하여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주요 언론에서 개최되는 제5회 서울노인영화제는 만 60세 이상의 자유주제와 청년세대의 노인 주제 단편영화들이 한자리에서 상영되는 영화축제다. 개인공연과 개막식, 서울노인영화제 흥보대사 박해일 주연의 2012년 문재작(은교) 및 디제로운 단편영화들의 상영, 특별 프로그램과 부대행사, 영화제 시상식과 수상작 상영으로 이어지는 축제의 향연.

최근 300억을 투자하여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주요 언론에서 개최되는 제5회 서울노인영화제는 만 60세 이상의 자유주제와 청년세대의 노인 주제 단편영화들이 한자리에서 상영되는 영화축제다. 개인공연과 개막식, 서울노인영화제 흥보대사 박해일 주연의 2012년 문재작(은교) 및 디제로운 단편영화들의 상영, 특별 프로그램과 부대행사, 영화제 시상식과 수상작 상영으로 이어지는 축제의 향연.

최근 300억을 투자하여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주요 언론에서 개최되는 제5회 서울노인영화제는 만 60세 이상의 자유주제와 청년세대의 노인 주제 단편영화들이 한자리에서 상영되는 영화축제다. 개인공연과 개막식, 서울노인영화제 흥보대사 박해일 주연의 2012년 문재작(은교) 및 디제로운 단편영화들의 상영, 특별 프로그램과 부대행사, 영화제 시상식과 수상작 상영으로 이어지는 축제의 향연.

최근 300억을 투자하여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주요 언론에서 개최되는 제5회 서울노인영화제는 만 60세 이상의 자유주제와 청년세대의 노인 주제 단편영화들이 한자리에서 상영되는 영화축제다. 개인공연과 개막식, 서울노인영화제 흥보대사 박해일 주연의 2012년 문재작(은교) 및 디제로운 단편영화들의 상영, 특별 프로그램과 부대행사, 영화제 시상식과 수상작 상영으로 이어지는 축제의 향연.

최근 300억을 투자하여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주요 언론에서 개최되는 제5회 서울노인영화제는 만 60세 이상의 자유주제와 청년세대의 노인 주제 단편영화들이 한자리에서 상영되는 영화축제다. 개인공연과 개막식, 서울노인영화제